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¹⁾

박동현*

0. 들어가는 말

0.1. 연구의 목적과 방향과 한계

한국 교회의 역사가 백 년이 넘는데도, 구약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²⁾ 낱말의 한글 음역 방식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구약학 관련 논문에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아직도 로마 글자로 음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한글로 나온 히브리어 문법책에서 각 저자 나름대로 히브리어 낱말의 한글 음역을 해온 탓에, 히브리어 낱말의 한글 음역 체계가 사람에 따라 달라서, 때로는 한글 음역에 다시 로마자 음역을 덧붙이는 수고를 하기도 한다.

성서 고전어의 음역을 민영진은 음역된 것으로써 원문의 재구성을 꾀하는 ‘완전 음역’과 원천 언어의 고유 명사나 특수 용어를 수용 언어의 글자 범위 안에서 적어보려는 ‘편의 음역’의 두 가지로 나눈다³⁾. 이에 따르면, 필자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전 음역’이다. 곧, 구약 히브리어 고유 명사나 특수 용어뿐만 아니라 일반 낱말, 더 나아가서는 문장을 그 소리를 따

*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1) 이 글은 『장신논단』 제16집(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년 12월 출간 예정)에 실릴 ‘한글개역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한글 음역 방식에 대한 고찰’과 『구약신학저널』 제1권 제2호(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0년 12월), 195-216쪽에 실린 ‘한글개역판 구약 성경의 전통을 살린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의 모체가 되는 논문으로, 앞 두 책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2000년 12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모인 제 57회 한국구약학회 모임에서 발표되었는데, 그 날 발표 뒤에 구약학회원 몇 분이 그 내용에 대해 밝힌 의견 가운데서 몇 가지는 이 글의 각주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앞으로는 편의상 그냥 ‘구약 히브리어’라고만 하겠다.

3)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²1990), 340, 345-346쪽.

라 우리말로 적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본디 우리 한글 글자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 적기보다는 누가 보아도 한글 표기로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음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글은 ‘편의 음역’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제는 히브리어 낱말의 한글 음역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그 기초 작업으로 개역한글판⁴⁾에서 고유 명사 음역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개역한글판에서 고유 명사를 ‘편의 음역’하는 방식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어 환경이 많이 달라진 오늘에도 이 방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쓸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구약 히브리어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모든 낱말의 소리를 우리말로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는 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나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전통을 살려, 히브리어 일반 낱말의 음역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개역한글판에 음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명사의 표기 방식을 개정하려는 것⁵⁾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서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 명사 한글 음역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은 히브리어 일반 낱말의 바람직한 한글 음역의 기초를 닦기 위한 것이지, 이미 관용으로 굳어져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고유 명사 표기 자체를 무조건 바꾸자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구약 히브리어 한글 음역의 시안을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방식을 중심으로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고유 명사를 한 번 새로운 방식으로 음역한 바 있지만⁶⁾, 지난 육십 여 년 동안 우리 교회 현장에서 주로 사용해 온 성경이 개역성경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글개역판의 음역 전통이 표준새번역 성경과 개역개정판에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⁷⁾는 사실도

4) 이 성경을 ‘한글 개역판’, ‘우리말 개역 성경’ 등으로도 부르지만, 이 글에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쓰는 공식 명칭을 따라 ‘개역한글판’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사용한 개역한글판 성경은 1996년도판이다.

5) 이 문제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6) 공동번역에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 히브리어 고유명사를 한글로 음역했는지는 따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7)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에서 개역한글판의 구약 히브리어 고유명사 표기를 부분적으로 손질한 흔적은 보인다. 이를테면, 표준새번역에서는, 아래 2.2.18.(3)의 각주 71과 (4)의 각주 73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낱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고유명사를 개역한글판에서 띄어 음역한 것을 붙여 음역하였고, 개역개정판에서는, 아래 2.2.13.(1)의 각주 64와 2.2.14.(1)②의 각주 6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한글판의 잘못된 음역 표기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미리 말해 둘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2,700여 개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⁸⁾가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알렙>⁹⁾ 아래 유성 <쉬와>가 오는 꼴이 고유 명사에는 쓰이지 않으나, 일반 낱말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예레미야 2장 3절의 אֱלֹהֵינוּ 가 그런 보기이다. 여기에 이 글에서 제안하는 음역 시안의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히브리 고유 명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꼴을 음역할 때, 그와 비슷한 경우에 비추어, 유추해냄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0.2. 연구의 범위와 방식

0.2.1. 연구의 범위

먼저, 2700여 개에 이르는 구약 히브리어 고유 명사가 개역한글판에서 어떻게 음역되어 있는지를 모음 음역(아래 1)과 자음 음역(아래 2)의 두 범주로 크게 나누어 알아보면서, 각 경우에 그 음역 방식 가운데서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여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미리 말해 둘 것이 몇 가지 있다.

(1) 이 글에서는 히브리어 한글 음역의 시안을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방식을 중심으로 마련해보고자 하므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곳에 쓰이더라도, 이를 구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스마야>(שמעיה, שמעיה)라는 이름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스물 둘이나 있으며¹¹⁾, <기브아>(גבעה, גבעתה, גבעת, הגבעה, הגבעתה)라는 이름의 장소는 여섯 군데나 있고¹²⁾, <우스>(עוּס)는 세 군데 지명도 되고 세

8) G.Lisowsky, *Konkordanz zum hebraeischen Alten Testament*(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³1993)에 1579-1672쪽에 따르면, 모두 2730개의 고유 명사가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종류의 성구사전, 이를테면 죠지 V.위그렘 저, 김만풍 역, 『구약성구사전』(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3), 1751-2065쪽을 보면, 그 올림말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 전체 숫자도 달라진다.

9) 이 글에서도 히브리어 한글 음역은 < >안에 넣기로 한다.

10) 아래 2.2.2.(2), 2.2.3.(2)가 그런 보기이다. 이런 유추의 결과를 한데 모아 정리해 본 것은 아래 2.4.2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앞 주8에서 인용한 G.Lisowsky의 성구사전, 1669쪽을 보라.

사람의 이름도 된다¹³⁾. 그렇지만, 이 글에서 그저 <스마야>와 <기브아>와 <우스>의 음역 표기 방식만 따져보려고 할 따름이다.

(2) 구약 히브리어 고유 명사 가운데 문법적인 내용을 고려한 번역은 일단 그 뿌리가 되는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런 경우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역양 때문에 모음이 달라지는 경우: 이를테면, **בֵּית לָחֶם**(삿17:7 등)에 역양이 붙어서 **בֵּית לָחֶם**(창 35:19 등)으로 되었더라도, 이것을 개역한글판에서는 <베들라헴>이라고 적지 않고, 역양 없을 때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적었다¹⁴⁾. 따라서, 이런 경우는 역양이 붙지 않은 **בֵּית לָחֶ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② ‘방향의 <헤>’(He locale)가 붙는 경우: 이를테면, **בְּבֶלְתַּר**(왕하 24:15 등)은 본디 ‘<바벨론>으로’를 뜻하지만, 그냥 <바벨론>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③ 민족이나 족속이나 언어의 이름: 이를테면, **אַרְמִי**(창25:20 등, ‘<아람> 족속’), **אַרְמִית**(왕하18:26 등, ‘<아람> 방언’)은 따로 다루지 않고, 그냥 <아람> 항목에 속한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④ 지역 주민의 이름: 이를테면, **בֵּית הַלְחָמִי**(삼상16:1 등, ‘<베들레헴> 사람’)은 따로 다루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 항목에 속한 것으로 다루기로 한다.

⑤ 짧은 꼴과 긴 꼴의 두 가지가 있는 이름: 이는 <아비아>(אַבְיָה)와 <아비아후>(אַבְיָהוּ)의 경우처럼, 주로 이름 끝에 야훼의 줄인 이름 <야>(:)나 <야후>(יָהוּ)가 붙는 경우를 말한다. 짧은 꼴과 긴 꼴은 따로 다루지 않고, 하나로 묶어 다루기로 한다.

(3) 발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전통을 따라 옮긴 이름은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מִצְרַיִם**을 ‘애굽’으로, **סוּף הַיָּם**을 ‘홍해’로 옮긴 것이 그런 경우이다.

0.2.2. 한글 외래어 표기의 다섯 가지 원칙

12) 같은 책, 1596쪽을 보라.

13) 같은 책, 1649쪽을 보라.

14) 그런데, 드물게 역양 없는 기본꼴마저 오히려 역양 붙은 꼴을 따라 음역한 경우가 있다. **בֵּית**(창7:13 등)을 **בֵּית**(창5:32 등)에 맞추어 <야벳>으로, **בֵּית**(창5:16 등)을 **בֵּית**(창5:15; 대상1:2)에 맞추어 <야벳>으로, **בֵּית**(창4:19 등)을 **בֵּית**(창4:18 등)에 맞추어 <라멕>으로 적은 것이 그런 보기이다.

한글 음역에서 존중해야 할 것은 1986년 1월 7일에 당시 문교부가 개정 공포하여¹⁵⁾ 오늘까지 통용되고 있는 외래어 표기¹⁶⁾의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이다¹⁷⁾.

- (1)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스물 네 자모만으로 적는다.
- (2) 외래어의 한 음운은 원칙적으로 한 기호로 적는다.
- (3)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4)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¹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방식도 대부분의 경우 위 (1)-(4)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0.2.3.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의 방향

아래에서 음역 시안을 마련할 때 필자가 특별히 고려한 원칙이 몇 가지 있다.

(1) 히브리 자모는 그것이 발음이 안 되는 경우, 곧 구약 히브리어 문법에서 명백히 묵음으로 쓰이는 경우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음역에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א, ב, ג, ד, 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¹⁹⁾.

(2) 음절 단위로 쓰는 한글의 특성을 살려서, 음역에서도 될 수 있는 한 히브리어의 음절 구분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은 특히 후음(喉音) **א, ב, ג, ו**이나 반자음(半子音) **כ, פ**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를테면, **כֹּחַ**(창14:2)을 <시납>로 적기보다는 <신압>²⁰⁾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3) 어떤 히브리어 자음이나 모음을 음역해 놓은 것이 그것 아닌 다른 것의 음역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면서 음역하

15) 권용경, 김만수 엮음, 『새한글 맞춤법 사전』 (서울: 집현전, 1988), 4쪽.

16) 앞의 주1에서 언급한 한국구약학회 제57차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한 바처럼, 구약 히브리어의 음역은 외국어 표기이지 외래어 표기가 아니므로, 정부에서 정한 외래어 표기 원칙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외국어를 발음을 따라 정확히 표기한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낯선 꼴의 한글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한글로 음역된 히브리어가 자주 쓰이다가 외래어로 될 경우도 생길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외래어 표기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한다.

17)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종로서적 편집부 엮음, 『한글 바로쓰기』 개정판(서울:종로서적, 1989), 90쪽과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열린자료방 - 문화정책 - 한국어문규정 - 외래어표기법 제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사, 1984, ²1990), 346쪽과 견주어 보라.

19) 아래 2.2.1.(1), 2.2.5.(2), 2.2.8.(2), 2.2.10.(1), 2.2.16.(2)(3)을 보라.

20) 아래 2.1.(1)을 따르면 <쉬압>으로 적어야 한다.

는 것이 바람직하다²¹⁾.

(4) 서로 다른 히브리어 자음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음역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²⁾.

(5) 히브리어의 발음 방식이 현재 유대식 또는 유럽식과 종래의 영미식²³⁾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일단 종래의 영미식을 따르기로 한다. 이를테면, ו를 유대인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영어의 v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어서 그 소리값을 우리말로 <ㅂ>으로 쓸 만한데, 이 글에서는 ו가 지니는 반(半)모음²⁴⁾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영미식을 따라 <오>나 <우>로 적기로 한다. 또 유대인들은 중복점(dagesh forte)이 찍힌 자음도 발음할 때는 중복점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음하고, 유성 <쉬와>도 <ㄱ>에 가깝게 발음하지만, 우리로서는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방식을 따라, 중복점이 찍힌 자모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중복 사실을 알아볼 수 있게 두 자모로 적고, 유성 <쉬와>도 <ㅡ>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한다²⁵⁾.

(6)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한 음역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자모의 음운 체계²⁶⁾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 이를테면 한 후음에 해당하는 특

21) 이를테면, 아래 2.2.2.(2), 2.2.5.(2), 2.2.8.(2)를 보라.

22) 아래 2.1.(1)과 2.2.20을 보라.

23) 여기서 ‘종래의 영미식’이라 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는 영미 학자들도 유대식 또는 유럽식을 따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James D.Marti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Edinburgh: T. & T. Clark, 1997), 황선옥 역, 『데이빗슨의 히브리어교본 제27판』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8), 20-21쪽과 왕대일, 『다시 듣는 토라. 설교를 위한 신명기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8)에서 쓰고 있는 음역 방식을 보면, <와우>를 각각 영문자 v와 우리말 <ㅂ>으로 적고 있다.

24) ו와 ו를 서양 학자들은 ‘반(半)모음’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어의 자모는 근본적으로 모두 자음이므로, 이 글에서는 ‘반자음’으로 부르기로 한다.

25) 아래 1.3을 보라.

26) 그 모두가 자음인, 히브리어 23자모를 분류하는 데는 다른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통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나는 각 자모가 소리나는 곳을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 자모가 소리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Hadumod Bussmann,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Alfred Kroener Verlag, 21990], 411-412쪽). 이를테면, E.Jenni, *Lehrbuch der hebraischen Sprache des Alten Testaments* (Basel u. Stuttgart: Verlag Helbing & Lichtenhahn, 1978), 29쪽(2.3.1.5)에서는 히브리어 23자모를, 일단 연강점(dagesh lene)이 있고 없음에 따라 כ ג ך ם ן ף의 발음에 차이가 나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전자의 기준을 따라 순음(唇音) (כ, ם, ן, ף)과 치음(齒音)과 구개음(口蓋音)과 후음(喉音)으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후자의 기준을 따라 폐쇄음(閉鎖音)과 마찰음(摩擦音)과 향음(響音)과 반모음(半母音)으로 나눈다. 또 치음은 다시 단순치음(ך, ן, ם, ן, ן, ן)과 치경음(齒莖音) (ך, ם/ם, ם)으로, 구개음은 경구개음(硬口蓋音)(ך, ן)과 연구개음(軟口蓋音)(ג, ן, ן)으로, 후음은 후두음(喉頭音)(ך, ן)과 성문음(聲門音)(ך, ן)으로 나누며, 폐쇄음은 유성음 (כ, ך, ן)과 무성음(כ, ן, ן)과 강세음(כ, ן)으로, 마찰음도 유성음(ך, ך)과 무성음

별한 상황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른 후음에도 적용하기로 한다. 아래 2.2.23.(2)에서 η 앞의 끝소리 η 를 <트>로 적자는 제안이 그런 보기이다.

0.3. 개역한글판 음역 방식의 일관성 문제

그런데, 개역한글판 음역 방식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1) 같은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음역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테면, בְּלָצָם 을 민수기 22장 5절 등에서는 <발람>으로 역대상 6장 70절에서는 <빌르암>으로 적었다.

(2) 고유명사에 관사가 붙었을 경우에 관사까지 음역한 경우와 관사를 빼고 음역한 경우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를테면, בֵּית הַכֹּהֵן (렘6:1) <벤허 계렘>과 $\text{מִתְּנֵי הַאֲמָרָה}$ (삼하8:1) <메텍암마>를 견주어 보라.

(3) 합성 고유 명사의 경우에 그 전체를 붙여 음역한 경우와 낱말에 따라 띄어 쓰면서 음역한 경우가 나란히 나오기도 한다. 이를테면, שֹׁאֵר יְוֹשֵׁב (사 7:3) <스알야슈>과 בֵּית בָּרָה (삿7:24) <벤허 바라>를 견주어 보라. עֵינַי רִגְלַי 의 음역으로는 <엔로겔>(수15:7)과 <엔 로겔>(수18:16)의 두 경우가 다 나온다.

(4) 연계형과 절대형이 합쳐서 이루어진 고유 명사의 경우에 히브리어 낱말 순서대로 음역한 경우와 그 순서를 바꾸어 음역한 경우가 뒤섞여 있다. 이를테면, מְרִיבַת קְדֵשׁ (겔48:28) <트리바가데스>와 בְּמִוֹרֶשֶׁת נָת (미1:14) <가드 모레셋>을 견주어 보라.

(5) 낱말의 뜻도 고려하면서 음역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벤허론> 또는 <벤허 호론>(בֵּית חֶרֶן , בְּ חֶרֶן , בְּ חֶרֶן , בְּ חֶרֶן)(삼상13:18; 대상 6:68[53] 등)의 경우에, בְּ חֶרֶן 은 ‘윗 <벤허 호론>’(수16:5) 또는 ‘윗

(שׁ/ס , ח , ה)과 강세음(צ)으로, 향음은 비음(鼻音)(מ , נ)과 측음(側音)(ל)과 전동음(顫動音)(ר)으로 나눈다. 이리하여 히브어 각 자모는 두 가지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한편, W.Gesenius/ E.Kautzsch, *Hebraeische Grammatik* (Leipzig, 281909 = Hildesheim/Zue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83), § 60에서는 ז , שׂס , צ 를 치찰음(齒擦音)으로 한데 묶는다. 이처럼 히브리어 자모 분류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위의 두 경우와 또한 A.B.Davidson/ J.Mauchline, *An Introductory Hebrew Grammar*(Edinburgh:T.& T.Clark, 261966), 이영근 옮김, 『A.B.데이빗슨 히브리어 문법 제26판』(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24-26쪽과 앞의 주23에서 인용한 『A.B.데이빗슨 히브리어 문법 제27판』, 20-23쪽과 Gene Schramm/Philip C.Schmitz, "Language(Hebrew)", *ABD* IV(1992), 206-207쪽을 서로 견주어 보라. 이 글에서는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한글 음역 방식을 설명하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각 히브리어 자모가 속하는 두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부르기로 한다. 이를테면, 순음인 동시에 비음인 מ 은 비음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마찬가지로 순음인 ו 도 앞의 주24에서 밝혔듯이 반자음이라 부르면서 י 와 같은 종류의 자음으로 묶기로 한다.

<벤호론>’(대하8:5)으로, בְּחֹרֶן(בְּ) חֹרֶן(חֹ)은 ‘아래 <벤 호론>’(수16:3; 18:13) 또는 ‘아래 <벤호론>’(왕상9:17; 대하8:5)으로 옮겼다.

1.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모음 음역 방식과 그 문제점과 대안

1.1. 모음의 길고 짧음을 구별하지 않고 음역했다.

히브리어의 장모음과 단모음과 불명료모음(אָוֶ, <쉬와>)이 같은 종류에 속할 때, 그 차이를 구별하여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אָ(אָ)와 אַ와 אֲ는 한결 같이 <ㅏ>로, אִ(אִ)와 אֵ(אֵ)는 모두 <ㅓ>로, אֵ(אֵ)는 <ㅣ>로, אִ(אִ)와 אַ와 אֲ는 한결같이 <ㅜ>로, וֹ와 וְ는 <ㅜ>로 적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אָהָם(대하11:19)<사함>, אָהָבָה(스2:45; 느7:48) <하가바>, אָהָרָה(창36:35등)<하닷>

אָהָלָם(대상7:35) <헬렘>, אָהָמִישָׁרָה(단1:7 등) <메삭>.

אָהָרִיבִים(스2:25) <기라다임>, אָהָרִיבִים(출17:8 등) <르비담>.

אָהָרִיבִים(창26:22) <르호봇>, אָהָרִיבִים(왕상16:16 등) <오프리>, אָהָרִיבִים(룻1:2 등) <나오미>.

אָהָרִיבִים(창36:37 등) <사울>, אָהָרִיבִים(학1:1 등) <스룹바벨>.

본디 우리 한글에서는 모음의 길고 짧은 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은 오늘에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1.2. 완전모음의 표기 가운데서 다음 몇 가지 경우는 독특하다.

(1) אָ(카메츠)를 <ㅏ>로 적은 경우: אָהָרִיבִים(왕상11:26 등) <여로보암>, אָהָרִיבִים(민13:14) <웁시>. 여기서 <여>와 <워>는 각각 <야>와 <와>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2) אָ(카메츠)를 <ㅓ>로 적은 경우: אָהָרִיבִים(스10:43) <스비내>. 여기서 <내>는 <나>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3) אָ(카메츠)를 <ㅓ>로 적은 경우: אָהָרִיבִים(창14:18; 시110:4) <멜기

세택>. 두 낱말이 한데 어우러져서 된 이 이름에서 <멜>은 물론 앞 낱말의 뿌리인 מֶלֶךְ의 첫 모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מַלְכֵי־וְשָׁע(삼상14:49 등)를 <말기수아>로 적은 것에 맞추면, <말>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4) ׀ (<카메츠>)를 <ג>로 적은 경우: שָׁמֶר(대상7:34) <소멜>²⁷⁾. 여기서 <소>의 <ג>는 <א>로 바꾸어 적는 것이 나아 보이지만, 이 경우는 대상 7:32의 שָׁמַר에 맞추기 위해 그리한 것으로 보인다.

(5) ׀ 를 <ג>로 적은 경우: יַדְיָ(민26:3 등) <요단>. 여기서 <요>는 <א>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6) ׀ 를 <א>로 적은 경우: בָּלָעַם(민22:5 등)<발람>, שָׁמוֹשׁן(삿13:24 등)<삼손>, וָאֵו(왕하18:34; 19:13) <아와>²⁸⁾. 여기서 <발>과 <삼>과 <아>의 <א>는 <׀>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7) ׀ 를 <כ׃>로 적은 경우: בְּנֵי־מִין(창35:18 등) <베냐민>, יְרֵמְיָה(렘27:1 등) <예레미야>, שֶׁבַע(창26:33) <세바>. 여기서 첫 경우는 그 앞 구성 요소인 בָּ 또는 בְּכֹֹל, 마지막 경우는 그 본문의 중심 낱말 가운데 하나인 שֶׁבַע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베>와 <예>와 <세>의 <כ׃>는 모두 <׀>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8) ׀ 를 <־>로 적은 경우: בְּבִי, בְּבִי <브배>(스2:11; 느7:16)²⁹⁾, בְּרוּדָה(겔47:16) <브로다>, וְסָדָם(대상26:22) <스담>³⁰⁾. 여기서 <브>와 <브>와 <스>의 <־>는 모두 <כ׃>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9) ׀ 를 <ח׃>로 적은 경우: וְחֵבֶל(민21:14) <와협>. עֵין וְגַיִם <언간님>(수 19:21) 또는 <언간님>(수21:29)³¹⁾. 여기서 <협>과 <언>의 <ח׃>는 모두 <כ׃>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10) ׀ 를 <א׃>로 적은 경우: יַדְיָ(민26:3 등) <요단>. 여기서 <단>의 <א׃>는 <כ׃>로 바꾸어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11) ׀ 를 <ד׃>로 적은 경우: עֵדֵן בְּיַם(암1:5) <벤에던>. 여기서 <던>의 <ד׃>는 <כ׃>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실제로 עֵדֵן(겔27:23 등)은 <에텐>으로 적었다.

(12) ׀ 를 <׀>로 적은 경우: אֵדֶן(대하9:29Q) <잇도>. 이 이름을 יְרָח(창 10:26 등) <예라>와 יְרָח(삿8:20 등) <예델>에 견주어 보면, 여기서도 <잇>은

27) 대상6:46[31]에서는 שָׁמֶר를, 그 본꼴인 שָׁמַר(왕상16:24,24)를 따라 <세멜>로 적었다.

28) 사37:13에서는 וָאֵו를 <이와>로 옮겨 적었다.

29) 스8:11; 10:28; 느10:16에서는 <베배>로 적었다.

30) 대상23:8에서는 같은 이름을 <세담>으로 적었다.

31) 수15:34에서는 같은 이름을 <엔간님>으로 적었다.

<엣>으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13) ׀ (<카메츠 하툼>)을 <ㅏ>로 적은 경우: נָּמַי(룻1:2 등) <나오미>. 여기서 <나>의 <ㅏ>는 <ㄴ>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14) ׀를 <ㅡ>로 적은 경우: אֹּלְי(단8:2 등)<올래>, חֲקוּפָּא(스2:51 등) <하그바>, מְתוּשָׁלַח(창4:18) <므드사엘>, שְׁבוּאֵל(대상23:16; 25:4) 또는 שְׁבֹאֵל(대상26:24) <스브엘>, שְׁמוּאֵל(민34:20; 대상7:2) <스므엘>. 맨 마지막 경우는 사사 사무엘³²과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으>와 <그>와 <드>와 <브>와 <므>의 <ㅡ>는 모두 <ㄷ>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15) ׀를 <ㄴ>로 적은 경우: וְבַלְוֹן(창30:20 등) <스블론>. 이 이름에서 비롯된 족속 이름 וְבַלְוֹנִי(삿12:11 등)에서는 모음 <ㄴ>가 나타나지만, וְבַלְוֹן 자체의 마지막 모음은 <ㄷ>로 적을 만하다.

(16) ׀를 <ㄴ>로 적은 경우: וְבַלְוֹן(창35:23 등)<스블론>, חֲבָה(대상7:34Q) <호바>. וְבַלְוֹן의 마지막 모음은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ㄷ>로 고쳐 적고, חֲבָה의 경우에는 이 이름의 뿌리인 חָב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로는 첫모음을 <ㄷ>로 바꾸어 적을 만하다.

1.3. 소리가 나는 단순 불명료모음(<쉬와>)는

(1) 대부분 <ㅡ>로 적었다: בְּדָד(창36:35 등) <브닷>, וְבוּ(민32:3 등) <느보>, שְׁוֹא³³(대상2:49 등) <스와>, לְבָנָה(스2:45 등) <르바나>, שְׁכִנְיָה(대상3:21 등)<스가나>, מִכְמַתָּה(수16:6 등) <믹므다>, אֲלִיפְלָהוּ(대상15:18 등) <엘리블레후>, בְּדָיָה(스10:35) <베드야>, בִּזְוָתָא(에1:10) <비스다>, בְּכָרוּ(대상8:38 등) <보그루>, סִיסְרָא(삿4:2 등) <시스라> 등.

(2) 때로는 <ㅌ>로 적었다: לְבָנוֹן(왕하19:23 등) <레바논>, בְּדָן(삼상12:11) <베단>, שְׁכָם(창12:6 등) <세겜>, אֲחַמְתָּא(스6:2) <악메다>, עַל גְּבוּב(왕하1:2 등) <바알세붓>, בֵּית לְעֶפְרָה(미1:10) <베들레아브라>. עֲגֹלַת שְׁלִשְׁיָה의 경우에는 <에글랏 슬리시아>(사15:5)과 <에글랏셀리시아>(렘48:34)의 두 가지로 적혀 있다.

그렇지만, לְבָנוֹן과 בְּדָן과 שְׁכָם과 אֲחַמְתָּא도 각각 위 (1)의 לְבָנָה와 בְּדָד과 שְׁכִנְיָה와 מִכְמַתָּה처럼, <레>과 <베>와 <세>와 <메>의 <에>를 모두 <ㅡ>로 고쳐 적을 만하다³⁴).

(3) 또는 <ㄴ>로 적었다: סֹדֶם(창13:10 등) <소돔>, שְׂאֵן בֵּית־שָׁאן(왕상4:12,12)

32) 아래 1.3.(5)를 보라.

33) Lisowsky의 성구사전에서는 이를 שְׁוֹא로 잘못 써 놓았다.

34) 실제로 대상7:17에서는 בְּדָן을 <브단>으로 적었다.

<벤소안>, קָהָת <고핫>(출6:16; 민3:17,27; 26:57,58 등).

이 경우도 (1)의 경우처럼 <소>와 <고>의 <ג>를 <—>로 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³⁵⁾.

(4) 또는 <ד>로도 적었다: אֲשַׁפְּנוּ(단1:3) <아스부나스>, בֵּית דְּבָלָתִים(렘 48:23) <벤디블라다임>, בְּעַל-פְּרָצִים(대상14:11,11) <바알부라심>, בְּרֹאדָד בְּלֹאדָן(왕하20:12) <부로다발라단>, מְשֻׁלְמוֹת <무실레못>(대하28:12), סוּנָה(겔29:10 등) <수에네>³⁶⁾, הַצְּלִיפֹנִי(대상4:3) <하슬렐보니>.

이 경우도 (1)의 경우처럼 각각 <부>와 <불>과 <부>와 <부>와 <무>와 <수>와 <술>의 <ד>를 모두 <—>로 고쳐 적을 만하다³⁷⁾.

(5) 또는 <ג>로도 적었다: שְׂמוּאֵל(삼상1:20 등) <사무엘>³⁸⁾, כְּנַעַן(창9:26 등) <가나안>, חָלָל(왕하17:6 등) <할라>. 첫 경우는 위 1.2.(14)에 나온 같은 이름의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첫모음을 <ג>로 쓴 것으로 보이지만, (1)의 경우처럼 이 <ג>는 <—>로 고쳐적을 만하고, 나머지 두 경우의 <가>와 <할>의 <ג>도 마찬가지로이다.

이리하여, 단순 불명료모음, 곧 유성 <쉬와>는 <—>로 통일하여 적는 것이 좋다. 다만 자음 י나 ש에 유성 <쉬와>가 붙었을 때는 자음의 특수한 성질을 따라 각각 <여>나 <쉬>로 적는 것이 좋다³⁹⁾.

1.4. 본디 소리가 나지 않는 단순 불명료모음(<쉬와>)도 때때로 모음으로 적었다.

(1) <—>로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한글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를 때 받침으로만 적을 수 없는 자음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⁴⁰⁾.

35) 실제로 בֵּית-שָׁאָן을 수17:11,16에서는 <벤 스안>으로, 삿1:27;대상7:29에서는 <벤 스안>으로 적었다. 또 창46:11; 대상6:1[5:27] 등에서는 קָהָת을 <고핫>으로 적었다.

36) 이 경우에는 유성 <쉬와> 다음의 <와우>가 장모음 <에> 앞에서는 본디 <우>로 발음되는 것을 앞당겨 ס에 붙여쓴 것으로 볼 수 있다.

37) 실제로 삼하5:20,20에서는 בְּעַל-פְּרָצִים을 <바알브라심>으로, 느11:13에서는 מְשֻׁלְמוֹת을 <므실레못>으로 적었다.

38) 위 1.2 (14)에서 보기로 든 שְׂמוּאֵל(민34:20; 대상7:2) <스므엘>과 견주어 보라.

39)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347쪽에서는 י가 유성 <쉬와>와 합할 때에는 <예>로 적을 것을 제안하지만, 한글개역판에서는 י로 시작하는 고유 명사를 <예>보다는 <여>로 옮기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2.2.10.(1-1) ⑥을 보라.

40) 아래 2.2.2.(2)②, 2.2.3.(2)②, 2.2.4.(2)②, 2.2.7.(3), 2.2.9.(2)②, 2.2.11.(2)②, 2.2.13.(2)②, 2.2.14.(2)②, 2.2.15.(3), 2.2.17.(2)②, 2.2.18.(2)①, 2.2.18.(3), 2.2.19.(2)②, 2.2.20.(2)②,, 2.2.21.(2)①, 2.2.21.(3), 2.2.22.(2)②, 2.2.22.(3)①, 2.2.23.(2)②, 2.2.23(3)②를 보라.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2.4.3이다.

(2) <ㅏ>로도 적었다: תָּמַר תִּצְוֹן(창14:7) 또는 תָּמַר תִּצְוֹן(대하20:2) <하사손 다말>에서 <사>의 <ㅏ>가 그러하다.

(3) <ㅓ>로도 적었다: מַבְּטֵם(왕상11:26 등) <여로보암>에서 <보>의 <ㅓ>가 그러하다.

(4) <ㅕ>로도 적었다: רָמָה(렘27:1 등) <예레미야>에서 <레>의 <ㅕ>가 그러하다.

본디 소리가 나지 않는 <쉬와>는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자모의 음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리말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모음 <ㅡ>로 적을 수밖에 없다. (2)-(4)의 보기에 들어 있는 <쉬와>는 모두 <ㅡ>로 고쳐 적을 만하다. 다만 음절 끝의 ׀는 자모 ׀의 특성⁴¹⁾을 고려하여 <쉬>로 적기로 한다.

1.5. 복합 불명료모음을 본디 소리값하고는 다르게 적기도 했다.

(1) ֿ를 <ㅕ>로 적었다: חָהַר(느3:8) <할해야>에서 <해>의 <ㅕ>가 그러하다.

(2) ֿ를 <ㅓ>로 적었다: מִמְרָה(창10:19 등) <고모라>에서 <고>의 <ㅓ>가 그러하다.

(3) ֿ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חָפֵץ(창25:26 등) <야곱>을 חָפֵץ(대상 4:36) <야아고바>나 חָפֵץ(대상1:42) <야아간>과 견주어보면, 이 사실이 드러난다.

(4) ֿ를 <ㅡ>로 적었다: חָפֵץ(민32:35 등) <육브하>, חָפֵץ(수12:22) <육느암>⁴²⁾, חָפֵץ(대상2:44) <요르그암>, חָפֵץ(에2:5 등) <모르드개>에서 각각 <브>, <느>, <그>, <드>의 <ㅡ>가 그러하다.

(5) ֿ를 <ㅏ>로 적었다: חָפֵץ(스2:61) <하바야>에서 <하>의 <ㅏ>가 그러하다.

(1)-(3)의 보기에 들어 있는 ֿ와 (4)-(5)의 보기에 들어 있는 ֿ는 본디 소리 나는 대로 각각 <ㅏ>와 <ㅓ>로⁴³⁾ 고쳐서 적는 것이 좋다.

41) 아래 2.1.(1)을 보라.

42) 이는 수19:11; 21:34의 חָפֵ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43) 실제로 느7:63에서는 חָפֵץ을 <호바야>로 적었다.

2.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자음 음역 방식과 그 문제점과 대안

2.1. 일반적인 상황

(1) 첫소리로 쓰이는 히브리어 각 자모를 개역한글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다⁴⁴⁾.

א <오>, ב <ㅂ>, ג <ㄱ>, ד <ㄷ>, ה <ㅎ>, ו <오> 또는 <우>, ז <ㅈ>, ח <ㅎ>, ט <ㄷ>, י <이>, כ <ㄱ>, ל <ㄹ>, מ <ㅁ>, נ <ㄴ>, ס <ㅅ>, ע <ㅇ>, פ <ㅍ>, צ <ㅈ>, ק <ㄱ>, ר <ㄹ>, ש <ㅅ>, שׁ <ㅅ>, ת <ㄷ>.

이처럼 히브리 자모의 기본 소리값을 음역하면서, 개역한글판에서는 우리 한글 자모의 ‘ㅅ’과 또 거센 소리인 ‘ㄷ’, ‘ㄱ’, ‘ㅈ’, ‘ㅊ’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ג과 כ와 ק를 <ㄱ>으로, ד과 ט와 ת를 <ㄷ>으로, ב와 פ을 <ㅂ>으로, ז, ס, צ, ש, שׁ를 <ㅅ>으로 적고 있다.

그렇지만, 외래어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외국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쓰이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상황에서는, 적어도 ‘ㅅ’, ‘ㄷ’, ‘ㄱ’, ‘ㅈ’, ‘ㅊ’은 각각 히브리 자음 ז, צ, כ와 ק, ט와 ת, פ를 표시하는데 쓰는 것이 좋다. 또 שׁ이 그 다음 모음(<ㅏ>,<ㅓ>,<ㅣ>,<ㅜ>,<ㅛ>)과 결합할 때 우리말로써는 모음 <ㅣ>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식의 발음(<샤>, <세>, <쉬>, <쇼>, <슈>)이 나므로, 그 기본 소리값을 <시>로 표시하여 שׁ 및 ס을 <ㅅ>으로 표시하는 것⁴⁵⁾과 구별하기로 한다.

(2) כ ג ד ו פ ת 여섯 자음이 낱말이나 음절 첫머리에 와서 연강점이 찍힌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적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44) 그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2.2.1.(1)②, 2.2.5.(1)②, 2.2.8.(1)②③④, 2.2.12.(1-2), 2.2.13.(1)②, 2.2.14.(1)②, 2.2.16.(1)②③④와 2.3.(1)를 보라.

45)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353쪽에서는 ס을 <ㅁ>으로 적어 <ㅅ>으로 적는 שׁ과 구별하지만, 실제로 두 자모의 소리값은 그렇게 구별하기가 힘들다.

ובל(왕상6:38) <불>, לָבֶן(창24:29 등) <라반>, חֶשְׁבֹן(민21:25 등) <헤스본>
 יָדָה(창30:11 등) <갓>, הָגַר(창16:1 등) <하갈>, גִּלְגָּל(수5:9 등) <길갈>
 דָּן(창14:14 등) <단>, הָדָד(창36:35 등) <하닷>, עֲבָדִי(스10:26 등) <압디>
 כָּלָב(민13:6 등) <갈렙>, אֲכִישׁ(삼상21:11 등) <아기스>, אֲשַׁכֵּל(창14:13) <에
 스킨>

פָּרִיז(창46:12 등) <베레스>, גִּפְתָּה(창5:32 등) <야벳>, מִצְפָּה(호5:1 등) <미스
 바>

תְּבוֹר(삿4:6 등) <다블>, יוֹדָם(삿9:5 등) <요담>, נִפְתָּלִי(창30:8 등) <납달
 리>

2.2. 자모 순서에 따른 자음 음역

이제 아래에서는 히브리어 23 자모(ש와 ש을 따로 헤아림)의 순서대로 각 자음이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 (3) 낱말의 끝에 올 때,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 그것이 개역 한글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역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안도 제시해보기로 한다. 다만, 이제부터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에, 그 표기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시안을 앞당겨 따르기로 한다.

2.2.1. א

(1) א이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 이를

① 보통은 <ㅇ>으로 적었다: אָבִיאֵל(삼상9:1 등) <아비엘>, בְּתוֹאֵל(창22:22 등) <브두엘>, שִׁיאֵן(신4:48) <시온> 등,

② 더러 음절 끝소리 כ, ג, ח, כ, ל, מ, נ, ר, ש 뒤에서는 아예 적지 않고, א의 모음을 이런 자음에 바로 붙여 적었다: מְשִׁיבָאֵל(느3:4 등) <므세사벨>, יִגְאָל(민13:7 등) <이갈>, אֲחָאֵב(왕상16:28 등) <아합>, בְּרַכְאֵל(욥32:2,6) <바라겔>, בְּצַלְאֵל(출31:2 등) <브사렐>, בְּלָאֵדָן(왕하20:12 등) <발라단>, תְּנַמְאֵל(렘32:7 등) <하나멜>, שִׁנְאָב(창14:2) <시납>, אֲרַאֵלִי(창46:16 등) <아렐리>, מִשְׁאֵל(수19:26 등) <미살> 등⁴⁶⁾.

그렇지만, 이 경우도 위에서 말한 원칙에 따라 א의 존재를 음역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첫소리 <ㅇ>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여러 보기는 각각 <므세자브엘>, <이그알>, <아호압>, <바라크엘>, <브찰르엘>, <발르아단>,

46) 이에 대해서는 아래 2.2.2(2)③, 2.2.3(2)③, 2.2.5(2)③, 2.2.8(2)③, 2.2.11(2)③, 2.2.12(2)②③, 2.2.12(2)③, 2.2.13(2)③, 2.2.14(2)③, 2.2.20(2)③을 보라.

<하남엘>, <쉬압>, <아르엘리>, <미쉬알>로 고쳐 적을 만하다⁴⁷⁾.

(2) א이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 와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음역에서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 קָאָרָן(신1:1 등) <바란>, בְּרָאָה(대상8:21) <브라야>, תְּלֵאֲשָׁר(왕하19:12) <들라살>, מְרֵאֲשָׁה(수15:44) <마레사> 등.

(3) א이 낱말의 끝에 와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도 이를 음역에서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עֲזָרָא(스7:1 등) <에스라>, מִמְרָא(창13:18 등) <마프레>, נֹא(렘46:25 등) <노>, קִלְוֵא(민25:14) <살루> 등.

2.2.2. ב

(1) 낱말의 첫머리나 음절 첫머리에 올 때에는, ב를 첫소리 <ㅂ>으로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בָּרוּךְ(렘32:12 등) <바룩>, וְנֵבֶט(수21:17 등) <게바>, הֶלְבָּה(삿1:31) <헬바> 등.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ב를

① ר, ח, מ, נ, צ, ש, ת 앞에서 받침 <ㅂ>으로 적거나: וְזָבְדִי(수7:17 등) <삽디>, וְיִבְחָר(삼하5:15 등) <입할>, שִׁבְמָה(민32:38 등) <십마>, לִבְנָה(민33:20 등) <립나>, מִבְּצָר(창36:42 등) <밋살>, אֲבִשְׁלוֹם(삼하3:3 등) <압살롬>, סִבְתָּה(창10:7) <삽다> 등.

② א, ח, ל, נ, ע, ק, ר 앞에서 <브>로 적거나: וְיִשְׁבְּאֵב(대상24:13) <예세브압>, טִבְחָה(대상18:8) <디브햇>, דִּבְלַיִם(호1:3) <디블라임>, תִּבְנִי(왕상16:21 등) <디브니>, צִבְעוֹן(창36:2 등) <시브온>, רִבְקָה(창22:23 등) <리브가>, אֲבְרָהָם(창17:5 등) <아브라함> 등.

③ א이나 י이나 ע 앞에서 한글 표기상으로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 <ㅂ>으로 적거나: מְשִׁיבָאֵל(느3:4 등) <므세사벨>, חַשְׁבִּיָּה(스8:19 등) <하사바>, תִּבְעָרָה(민11:3 등) <다베라> 등.

④ נ 앞에서는 한글 발음을 따라 받침 <ㅂ>으로 적었다: שִׁחֹרֶר לְבָנָת(수19:26) <시홀 림낫>.

이처럼, א, ח, ל, נ, ע 앞에 오는 ב의 음역 방식이 여러 가지이어서, 각 경우 어느 쪽으로 통일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7) 아래 2.2.2.3,5,8,11,12,13,14,20,22 각 항목의 (2)를 보라.

그에 앞서 먼저 위 ②에서 ל이나 ך 앞의 ך를 <브>로 적는 것은 받아들일 만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곧, ךלְּ(호1:3) <디블라임>과 ךאֲבְרָהָם(창17:5 등) <아브라함>이 그 보기인데, 이 두 낱말을 이론적으로는 <딤라임>과 <압라함>으로 음절을 따라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 ‘왕십리’가 ‘왕심니’로 발음되는 것처럼, 실제 발음은 각각 <딤나임>과 <암나함>이 된다. 그리하여 음절 끝의 ך에 도움모음 <—>를 붙이고, 그 다음으로는 ל과 ך의 소리값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디블라임>과 <아브라함>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ך 앞의 ך는 굳이 <브>로 적을 필요가 없다. ②의 ךקָ <리브가>는 <립카>로 적어도 문제가 없다⁴⁸⁾.

이제 한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음역이 있는 경우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א이나 ע 앞의 ך를 위 ③처럼 본디 א이나 ע에 붙어 있는 모음과 결합되는 첫소리 <ㅍ>로 적으면, א이나 ע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위 ②처럼 <브>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ךשִׁיבְּאֵל과 ךתְּבַעֲרָה를 각각 <므세사벨>과 <다베라>로 적을 경우, 이는 각각 ךשִׁיבְּאֵל과 ךתְּבַרָּה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하므로, ②의 ךשָׁבָא <예세브압>과 ךעֲבֹוֹן <시브온>의 경우처럼 <므세자브엘>과 <타브에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경우를 <므세잡엘>과 <탑에라>로도 적을 만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א이나 ע 앞의 끝소리를 도움모음 <—>와 같이 적는 다른 자모의 경우와 - 이를테면, ךעֲוֹן <기드온> - 맞추어 적는 것이 더 낫다.

이와 마찬가지로, ך 앞의 끝소리 ך도 <브>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ךשָׁבָא(스8:19 등)를 <하사바>로 적으면, ךשָׁבָא 같은 경우를 떠올리게 되어, 본디 있던 ך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하샤브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ך 앞의 ך를 위 ①처럼 그냥 받침 <ㅍ>으로만 적으면, 그것이, 위 ךבְּרָח <입할>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다음 첫소리 <ㅎ>과 한데 어우러져서 첫소리 <ㅍ>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위 ②처럼 <브>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①의 보기인 ךבְּרָח는 ②의 보기인 ךטְּבַח <디브핫>의 경우처럼 <이브하르>로 고쳐 적을 수 있다.

כ 앞의 ך를 위 ①처럼 그냥 받침 <ㅍ>으로만 적으면, 그것이 כ 앞에서는 실제로 <ㅍ>의 소리값을 지녀 כ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위 ②처럼 <브>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①의 보기인 ךלְּנָא <립나>는 ②의 보기인 ךתְּנִי <디

48) 이 점은 나중에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와서 도움 모음 <—>를 필요로 하는 다른 자음들의 경우와 견주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2.4.3을 보라.

브니>의 경우처럼 <리브나>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מ** 앞의 **ב**도 <브>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①의 보기인 **מִשְׁבַּח** <שבח>는 <שמח>로 들려서, **ב**가 **מ**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시브마>로 고쳐 적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소리나는 대로 적은 ④의 경우인 **לְבַנֹּת שִׁחֹרֶרֶת** <시홀 림낫>도 **ב**이 **מ**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쉬호르리브낫>로 고쳐 적는 것이 낫다.

이처럼, **א, ח, ג, ע** 앞에 오는 **ב**의 음역 방식이 여러 가지이어서, 각 경우 어느 쪽으로 통일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ב**는 그 뒤에 **א, ח, י, ל, מ, נ, ע, ר**이 있을 때는 <브>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ㅁ>으로 적는 것이 좋다.

위 보기에 나오지 않은 경우, 곧 낱말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ב**가 **ג, ח, ו, ז, ט, כ, ס, פ, ש** 앞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본 바에 따라, 각 히브리 자모의 특성이나 음운 체계⁴⁹⁾에 맞추어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곧, **ב**가 연구개음인 **ג**이나 **כ** 앞에 올 때는 **ק** 앞에 올 때처럼, 후음 **ח** 앞에 올 때는 **ח** 앞에 올 때처럼, 반자음인 **ו** 앞에 올 때는 **י** 앞에 올 때처럼, 치찰음인 **ז**이나 **ס**이나 **צ**이나 **ש** 앞에 올 때는 **ש** 앞에 올 때처럼, **ט** 앞에 올 때는 **ר**이나 **ת** 앞에 올 때처럼 그냥 받침 <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추에 의한 음역이 실제로 무리가 없을지는 구체적인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를테면, **ב**가 순음인 **פ** 앞에 올 때는 때처럼 순음인 동시에 비음인 **מ** 앞에 올 때처럼 <브>로 적기보다는, 그냥 받침 <ㅁ>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이리하여, 위에서 확인한 바를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의 **ב**가 후음(**א, ח, ח, ע**)이나 반자음(**ו, י**)이나 측음(**ל**)이나 비음(**מ, נ**)이나 전동음(**ר**) 앞에 있을 때는, 그 **ב**를 <브>로 적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ב**를 받침 <ㅁ>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다: **רָחַב**(수2:1 등) <라합>, **בָּלַב**(민13:6 등) <갈렙>, **בָּבֶב**(겔30:5) <굽>, **תֵּל אָבִיב**(겔3:15) <텔아빔>, **אָבִיטֹב**(대상8:11) <아비뚝>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ㅁ>과 첫소리 <ㅁ>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49) 이에 대해서는 앞의 주26을 보라.

만하다: יָבֵם(창32:23 등) <압복>, לְרַבְּבָל(학1:1 등) <스룹바벨> 등,

② 예외적으로 그냥 첫소리 <ㅁ>으로만 적기도 했다: חָבָה(대상7:34<크레>) <호바>.

그런데, ②의 경우도 ①의 경우처럼 받침 <ㅁ>과 첫소리 <ㅁ>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낫다. 곧, חָבָה(대상7:34Q) <호바>는 <홉바>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3. ㄱ

(1) 낱말의 첫머리나 음절 첫머리에 올 때에는, ㄱ을 첫소리 <ㄱ>으로 적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만하다: וְגִלְגָּל(신4:43 등) <골란>, וְגִבְעוֹן(수9:17 등) <기브온>, מְגוּר(창10:2 등) <마곡>, אֲרָג(신3:4 등) <아르곱> 등.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ㄱ을

① ּ, ַ, ֶ, ִ 앞에서 받침 <ㄱ>으로 적거나: מְבִישׁ(스2:30) <막비스>, מְגִדֹּל(렘44:1 등) <믹돌>, מְבִישׁ(느10:21) <막비아스>, אֲבִבָּה(에1:10) <아박다> 등,

② ו 나 ל 나 ַ 앞에서 <그>로 적거나: בְּגִי(스2:2 등) <비그왜>, חֲגִלָּה(민26:33 등) <호글라>, מְגִרֹן(삼상14:2 등) <미그론> 등,

③ א이나 ע 앞에서는 첫소리 <ㄱ>으로 적었다: אִגָּל(민13:7 등) <이갈>, פְּגִיעָל(민1:13 등) <바기엘>.

그런데 ③의 경우에는 위 2.2.1.(1)과 2.2.2.(2)을 따라, 위 ②의 경우처럼 <그>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두 보기는 각각 <이그알>과 <파그이엘>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리하여,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ㄱ은 그 뒤에 א, ו, ל, ע, ַ이 올 때는, 일반화하여 말하면, 후음이거나 반자음이거나 측음이거나 전동음이 올 때는, 그 ㄱ을 <그>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ㄱ>으로 적으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ㄱ을 받침 <ㄱ>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צִקְלָג(삼상27:6 등) <시글락>, דֹּעַ(삼상21:8 등) <도엑>, חֲבָה(출6:21 등) <네백>, וְגִ(겔38:2 등) <곡>, שְׂרָג(창11:20 등) <스룩>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ㄱ>과 첫소리 <ㄱ>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만하다: חָקִי(학1:13 등) <학개>, חָקִית(삼하3:4 등) <학깃> 등.

② 예외적으로 첫소리 <ㄱ>으로만 적기도 했다: **הַגְּדֹלִים**(느11:14) <하그돌림>. 그렇지만, 이 경우도 앞의 경우를 따라 <학그돌림>으로 적는 것이 낫다.

2.2.4. ㄱ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ㄱ을 첫소리 <ㄷ>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דָּדָן**(민16:1 등) <다단>, **דָּעָר**(대하15:8 등) <오렛>, **דָּעָרָא**(창25:4 등) <엘다아> 등.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ㄱ을

① **ב, ג, מ, נ, פ, ש** 앞에서 받침 <ㅅ>으로 적거나: **שָׁבַט**(대상4:3) <잇바스>, **גִּדְדָּן**(신10:7,7) <굿고다>, **מַמֵּן**(렘48:2) <맛멘>, **נְבוּכַדְנֶאֶצַּר**(왕하24:1,11 등) <느부갓네살>, **בִּדְגָל**(왕하9:25) <빗갈>, **שִׁדְדָּי**(삼하24:6) <훗시> 등.

② **ב, ל, מ, נ, ע, פ, ק** 앞에서 <드>로 적거나: **מַכְנִדְבֵי**(스10:40) <막나드배>, **הַדְּלָי**(대하28:12) <하들래>, **אֲדָמָא**(창10:19 등) <아드마>, **אֲדָנָא**(스10:30 등) <아드나>, **גִּדְדֹּן**(삿6:11 등) <기드온>, **צִדְדָּקָא**(왕상22:11 등) <시드기야>, **גִּדְדֹּן**(삼하15:23 등) <기드론> 등.

③ **י**나 **ע** 앞에서는 첫소리 <ㄷ>으로 적었다: **עֹבָדָא**(읍1:1 등) <오바다>, **מִדְדָּן**(창25:2 등) <미디안>, **אֲדָדָא**(수15:22) <아다다>, **גִּדְדֹּם**(삿20:45) <기돔> 등.

이처럼, **ב, מ, נ, ע, פ** 앞에 오는 ㄱ의 음역 방식이 여러 가지이어서, 각 경우 어느 쪽으로 통일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ב나 **פ** 앞에 오는 ㄱ는 ①의 경우처럼 <ㅅ>으로 음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②의 보기인 **מַכְנִדְבֵי** <막나드배>와 **צִדְדָּקָא** <시드기야>는 각각 ①의 보기인 **שָׁבַט** <잇바스>와 **בִּדְגָל** <빗갈>처럼 <마크낫바이>⁵⁰⁾와 <칫키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ע 앞에 오는 ㄱ는 위 2.2.2.(2)에서 살펴본 바를 따라, <드>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보기인 **גִּדְדֹּם** <기돔>은 ②의 보기인 **גִּדְדֹּן** <기드온>의 경우처럼 <기드움>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י** 앞에 오는 ㄱ도 <드>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③의 보기인 **עֹבָדָא** <오바다>는 <오바드야>로 고쳐 적을 만하다.

50) <막>을 <마크>로, <배>를 <바이>로 고쳐적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아래 2.2.11.(2)와 2.2.10.(3)②를 보라.

비음(鼻音)인 ׀이나 ך 앞에 오는 ㄱ의 음역으로는 <드>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곧, 위 ①의 보기인 מַמֶּן <맛멘>과 נִבְּוֹנֵי־נֶפֶשׁ <느부갓네살>은 각각 <만멘>과 <느부간네살>로 발음이 되어, 본디의 ㄱ이 ㄴ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위 ②의 보기인 אֲדָמָה <아드마>와 אֲדָנָה <아드나>의 경우처럼, <마드멘>과 <느부카드넷차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ㄱ을 ㄱ, ㄴ, ㄷ, ㄹ, ㅂ, ㄱ, ㅍ, ㄱ 앞에 서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비음이나 후음이나 전동음 앞에서는 <드>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ㅅ>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ㄱ을

① 보통은 받침 <ㅅ>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אָרָה (대상8:15 등) <아랏>, אָרָה(대하15:8 등) <오렛>, אָרָה(삿9:26 등) <에벳>, אָרָה(삼상16:13 등) <다윗>, אֲי־בֹרֵךְ(삼상4:21)<이가붓>, אָרָה(창10:22 등) <룻>, אָרָה(민26:40 등) <아룻> 등.

② 드물게 <드>로 적기도 한다: אָרָה(느7:37 등) <로드>. 그렇지만, 위 ①에서 보기로 든 אָרָה의 경우를 따라 <룻>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⁵¹⁾.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ㅅ>과 첫소리 <ㄷ>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만하다: אָרָה(창2:14) <히테겔>, אָרָה(대상27:21) <잇도>, אָרָה(창48:7) <밧단>, אָרָה(왕하19:37 등) <에살핫돈> 등.

② 드물게 첫소리 <ㄷ>으로 적기도 했다: אָרָה(민34:4) <하살아달>. 그렇지만, 이것도 앞 경우를 따라 <하차르앗다르>로 적는 것이 낫다.

2.2.5. ㄴ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ㄴ를

① 보통은 첫소리 <ㅎ>으로 적었는데, 이는 받아들일 만하다: אָרָה(창16:1 등) <하갈>, אָרָה(민13:8 등) <호세아>, אָרָה(출6:23 등) <아비후>, אָרָה(대상4:29) <빌하> 등.

51)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347-348쪽에서는 파열음(또는 폐쇄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ㄺ가 끝소리로 쓰일 때, (1) 장모음 뒤에서는 도움 모음 <ㅡ>를 붙여서 적고, (2)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낱말에서 단모음 뒤에 올 때는 각각 받침 <ㄱ>, <ㅅ>, <ㅈ>으로 적으며 (3)한 음절 낱말에서 단모음 뒤에 오는 ㄱ ㅋ ㆁ ㄷ ㅌ ㄴ는 도움 모음 <ㅡ>를 붙여서 적고, ㄹ ㄺ는 각각 받침 <ㄱ>, <ㅈ>, <ㄱ>으로 적을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만,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드물게 첫소리 <ֹ>로 적기도 한다: **הָבֵל**(창4:2) <아벨>. 그렇지만, 이 경우도 ①처럼 <ֹ>으로 적는 것이 낫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ה**를

① **ה** 앞에서 <하>로 적거나: **מַהֲרֵי**(삼하23:28 등) <마하래>.

② **א** 앞에서는 첫소리 <ֹ>으로 적거나: **אֶשְׁחָאֵל**(삼하2:18 등) <아사헬>, **פְּדֻחָאֵל**(민34:28) <브다헬>.

③ **ל**, **ר**, **צ** 앞에서는 그 소리값을 적지 않았다: **רֹהֵג**(대상7:34Q) <로가>, **יָהֳרֵי**(대상2:47) <야대>, **פְּדֻחָצֹר**(민1:10 등) <브다술>. 심지어, **אֶהְרֹן**(출4:14 등) <아론>에서는 합성 <취와>가 붙은 **ה**조차 음역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①의 보기인 **מַהֲרֵי**(삼하23:28 등) <마하래>는 **מַהֲרֵי**를 생각하게 하므로, <마흐라이>로 적는 것이 좋다. 위 ②의 보기 가운데 하나인 **אֶשְׁחָאֵל**(삼하2:18 등) <아사헬>은 위 ③ 보기 가운데 하나인 **פְּדֻחָצֹר**(민1:10 등) <브다술>의 경우처럼 <아사엘>로 적는 것이 더 나은 반면, 위 ②의 또 다른 보기 **פְּדֻחָאֵל**(민34:28) <브다헬>은 **פְּדֻחָאֵל**을 생각하게 하므로, <프다흐엘>로 적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위 ③의 남은 두 보기인 **יָהֳרֵי**와 **אֶהְרֹן**은 각각 <야흐다이>와 <아하론>으로 고쳐적을 만하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나오는 **ה**는 묵음이 아닌 한, 모두 <호>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와서

① 소리가 나지 않는 **ה**는 음역에서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אֵלָהּ**(창36:41 등) <엘라>, **מֹשֶׁה**(출2:10 등) <모세>, **תְּאֵנֹת שֶׁלֶה**(수16:6) <다아낫 실로> 등.

② 마소라 본문에서 낱말 끝의 **ה**를 발음하도록 표시해 놓은 경우에도, 한글 음역에서는 이를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것으로 적었다: **נֹגַהּ**(대상3:7 등) <노가>.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노가호>로 적는 것이 낫다.

2.2.6. 1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① 이에 붙는 모음이 ‘**א**’ 계통일 때는 **ו**를 <**ו**>로 적었고: **וְהָבֵי**(민21:14) <와협>, **וַשְׁחֵי**(에1:9 등) <와스디>, **וַיִּזְחֹא**(에9:9) <왜사다>, **וַאֲהִיבָא**(스8:15 등) <아하와>, **וַאֲרֹרֵךְ**(겔27:8,11) <아르왓>, **וַיִּבְגְּוֵי**(스2:2 등) <비그왜> 등인데, **וַיִּפְסֵי**(민13:14)를 <웁시>로 적은 것은 예외적이다.

② 그 모음이 ‘**ק**’나 ‘**י**’ 계통일 때는 **ו**를 <ㅍ>로 적었다: **קָנַן**(창10:11 등) <니느웨>, **בֵּית עֲמֹנִי**(느7:28) <벤아스마웻>, **דָּוָד**(삼상16:13 등) <다윗>, **אֲוִי**(민31:8 등) <에위> 등,

③ 유성 <쉬와>와 합친 끝인 **ו**는 <위>로 적었다: **וַוִּדָן**(겔27:19) <위단>. 이는 다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이면서 모음 <아> 다음에 나오는 **ו**는,

① <우>로 적거나: **אֲרָוּנָא**(삼하24:20 등) <아라우나>, **וַוִּדָן**(겔47:16,18) <하우란>,

② <위>로 적거나: **אֲשִׁישָׁא**(대상18:16) <사위사>,

③ **י** 앞에서는 <위>로 적었다: **אֲשִׁישָׁיָא**(대상11:46) <요사위야>.

그렇지만,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ו**는 한결같이 <ㅍ>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②의 **אֲשִׁישָׁא**와 ③의 **אֲשִׁישָׁיָא**는 ①의 경우를 따라 각각 <샤우사>와 <요샤우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 끝에 **ו**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인 **אֲשִׁישָׁו**(창25:25 등)는 <에서>로 적었다. 그렇지만, 낱말 끝에 오는 **ו**도 <ㅍ>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אֲשִׁישָׁו**는 <에사우>로 고쳐 적을 만하다.

(4) 중복점이 찍힌 **ו**는 음역에서 그 중복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הָוָה**(창3:20 등) <하와>, **בָּוִי**(느3:18) <바왜> 등.

2.2.7. **ז**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ז**을 첫소리 <ㅈ>으로 적었다: **זָבָד**(대상2:36 등) <사밭>, **שִׁשָׁזָא**(대상11:42) <시사>, **אֲיִזְבָּל**(왕상16:31 등) <이세벨>, **זִזְבֵּן**(대상4:20) <벤소헛> 등.

그런데,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ז**는 첫소리 <ㅈ>보다는 위 2.1.(1)을 따라 <ㅈ>으로 적는 것이 낫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자밭>과 <쉬자>와 <이제벨>과 <벤조헛>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ז**을

① **ב**, **ק**, **ר** 앞에서 <스>로 적거나: **זִבְוִי**(민25:15 등) <고스비>, **עֲזֹבֵב**(느3:16) <아스북>, **הִזְבִּישָׁא**(왕하18:1 등) <히스기야>, **עֲזֹרָא**(스7:1 등) <에스라> 등.

② **י** 앞에서는 첫소리 <ㅈ>으로 적었다: **אֲחִישָׁזָא**(왕하1:2 등) <아하시야>, **חִישִׁזֵּן**(왕상15:18) <헤시온> 등.

두 경우 모두 위 2.1.(1) 또는 2.2.2.(2)를 따라 <즈>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코즈비>와 <아즈북>과 <히즈키야>와 <에즈라>와 <아하즈야>와 <헤즈온>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ז을 <스>로 적었다: זָבַח(렘10:9 등) <우바스>, זָבַח(룻2:1 등) <보아스>, זָבַח(삿5:23) <메로스>, זָבַח(창28:19 등) <루스> 등.

그렇지만, 이도 위 2.1.(1)을 따라 <즈>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우파즈>와 <보아즈>와 <메로즈>와 <루즈>로 고쳐 적을 만하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받침 <ㅅ>과 첫소리 <ㅅ>으로 나누어 적거나: סָפַח(스2:48 등) <갓삼>, סָפַח(스10:25) <잇시아>, סָפַח(삼하6:6 등) <웃사>, סָפַח(왕하15:30 등) <웃시아> 등,

② 그냥 첫소리 <ㅅ>으로만 적었다: סָפַח(창10:19 등) <가사>, סָפַח(에1:10) <비스다>.

그런데, 이는 각각 받침 <ㅅ>과 첫소리 <ㅅ>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낫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갓잠>과 <잇지야>와 <웃자>와 <웃지야>와 <앗자>와 <빋즈타>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8. ן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ן를

① 보통은 첫소리 <ㅎ>으로 적지만: ןְבֹרַח(왕하17:6 등) <하불>, ןְאֶחָז(대상7:12) <아헬> 등,

② 첫소리 <ㄱ>으로 적거나: ןְיִרְיָה(수2:1 등) <여리고>,

③ 첫소리 <ㅇ>으로 적거나: ןְנוֹחַ(창4:17 등) <에녹>,

④ 끝소리 ㄱ이나 ㅅ 뒤에서는 아예 적지 않았다: ןְחַפְּזָה(렘43:7 등) <다바네스>, ןְשָׂרָף(창17:19 등) <이삭>.

그렇지만, 위 ② ③ ④의 경우도 ן를 첫소리 <ㅎ>으로 적는 것이 낫다. 곧, 그 네 보기는 각각 <여리호>와 <하녹>⁵²⁾과 <이츠학>과 <타흐판헤스>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ן를

52) 창25:4; 46:9; 출6:14; 민26:5; 대상1:33; 5:3에서는 같은 이름 ַחְבֹּרַח 또는 ַחְבֹּחַ를 <하녹>으로 적었다.

① ל이나 מ 앞에서 <호>로 적거나: מַחְלִי(출6:19 등) <마홀리>, לְחַמִּי(대상 20:5) <라흐미>.

② ה 앞에서 <하>로 적거나: אַחַרָּה(대상8:1) <아하라>, וְנַחְרִי(삼하23:37 등) <나하래>. 이는 뒷 모음 <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י 앞에서는 <히>로 적거나: פְּקַחְיָה(왕하15:22 등) <브가히야>, וְגַחְיָה(대상6:6[5:32] 등) <스라히야>, פְּתַחְיָה(대상24:16 등) <브다히야>, אַחִיו <아히요>(대상8:14) 등.

④ א이나 י 앞에서는 첫소리 <ㅎ>으로 적거나: אַחַא(왕상16:28 등) <아합>, אַחִיו <아효>(삼하6:3,4) 또는 <아히오>(대상13:7 등).

⑤ מ이나 ש 앞에서 받침 <ㄱ>으로 적거나: אַחַמְתָּא(스6:2) <악메다>, אַחַדְתַּשְׁטָא(스4:7) <아닥사스다>.

⑥ ת 앞에서 받침 <ㄷ>으로 적거나: אַחַדְתִּים חֻדְשִׁי(삼하24:6) <닷딤훗시>.

⑦ ב, ג, ד, ל, מ, נ 앞에서 아예 적지 않았다: אַחַלְקָא(삼하23:32 등) <엘리아바>, אַחַד(대상5:1) <야도>, אַחַלּוֹן(룻1:2 등) <말론>, אַחַמְמַל(렘36:26 등) <여라므엘>, אַחַפְנָס(렘43:7 등) <다바네스> 등.

그렇지만, 위 ②의 보기인 <아하라>와 <나하래>에서 <하>는 ח나 ח나 ח를 생각하게 하므로, ①의 경우처럼 <아하라호>와 <나하라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한편 위 ③의 보기에서는 י의 소리값은 이미 <히>의 <|>로 표시되었으므로, 그 뒤에는 그저 <아>나 <오>만 적으면 될 터인데, 우리말 발음의 성격을 따라 다시 <야>나 <요>의 이중모음으로 적었다. 그리하여 마치 י에 중복점이 찍힌 듯한 오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곧, פְּקַחְיָה, וְגַחְיָה, פְּתַחְיָה, אַחִיו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이름들을 앞 2.2.4.(2) ②의 경우처럼, <프카호야>, <즈라호야>, <프타호야>, <아효요>로 적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에 ח는 앞 ②의 경우처럼, <호>로 적는 셈이 된다.

위 ④의 אַחַא와 אַחִיו은 위 2.2.1.(1)과 2.2.2.(2)를 따라 각각 <아호압>과 <아효요>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위 ⑤의 אַחַמְתָּא <악메다>는 이 이름의 둘째 자음이 ג이나 כ나 ק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아호므타>로 적는 것이 더 낫다.

위 ⑥의 보기인 אַחַדְתִּים חֻדְשִׁי(삼하24:6) <닷딤훗시>에서 <닷딤>은 חֻדְשִׁים이나 חֻדְשִׁים이나 חֻדְשִׁים을 생각나게 하므로, <타흐팀>으로 적는 것이 좋다.

위 ⑦의 보기들에서도 ח의 존재를 분명히 하려면, 이들을 각각 <엘르야호바>와 <야호도>와 <마홀론>과 <여라흐므엘>과 <타흐판헤스>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ן은 한결같이 <호>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서, 특히 모음 <א>(나) 또는 ‘도입 파타흐’(patach furtivum) 다음에 오는 ן은 음역에서 표기하지 않았다: ןִּי(왕하18:18 등) <요아>, ןִּי(대상7:39 등) <아라>, ןִּי(왕하15:25 등) <베가>, ןִּי(왕상5:4 등) <답사>, ןִּי(창5:29 등) <노아>, ןִּי(대상7:36) <수아>, ןִּי(삼상9:1) <아비아> 등.

그렇지만, 이 끝소리 ן를 <호>로 적는 것이 낫다. 곧 위의 낱말들은 각각 <요아호>, <아라호>, <페카호>, <답사호>, <노아호>, <수아호>, <아피아호>로 적을 수 있다.

2.2.9. ט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ט를 소리 <ט>으로 적었다: טִּבְיָ(스2:60 등) <도비아>, טִּבְיָ(창37:36 등) <보디발>, טִּבְיָ(수13:26) <브도님>, טִּבְיָ(민34:24) <십단> 등.

그렇지만, 위 2.1.(1)을 따라 첫소리 <ט>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토비아>와 <포티파르>와 <브토님>과 <십탄>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ט를

① ן이나 ן 앞에서는 받침 <ט>으로 적거나: טִּבְיָ(왕하21:19) <옷바>, טִּבְיָ(창26:21) <싯나> 등,

② ך 앞에서 <ט>로 적거나: טִּבְיָ(창36:39 등) <마드렛> 등,

③ ך 앞에서는 첫소리 <ט>으로 적었다: טִּבְיָ(민7:9 등) <스바다>, טִּבְיָ(느34:26 등) <블라다> 등.

이 가운데 ①에서 ן 앞의 ט를 받침 <ט>으로 표시한 것과 ②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③의 경우에는 위 2.2.2.(2) ②를 따라 각각 <스파트야>, <플라트야>로 고쳐적는 것이 좋겠다. ①에서 ן 앞의 ט는 ן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트>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טִּבְיָ <싯나>는 <신나>로 발음되어 טִּבְיָ를 떠올리게 하므로, <싯나>로 고쳐적을 만하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ט를 일반적으로는 받침 <ט>으로 적되, ך나 ן이나 ך 앞에서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반자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 앞에서는 <트>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오는 **ט**는 받침 <ㅅ>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טָרַף**(창8:4 등) <아라랏>, **טָלַף**(대상7:32 등) <야블렛>, **טָלַף**(대상2:47 등) <벨렛>, **טָפַף**(창10:6 등) <붓> 등.

(4) 중복점이 찍힌 **ט**를

① 보통은 받침 <ㅅ>과 첫소리 <ㄷ>으로 나누어 적지만: **טָטַף**(수19:15) <갓닷>, **טָטִים**(민25:1 등) <싯딤>, **טָטִים**(스8:2 등) <핫두스>, **טָטַף**(수21:16) <웃다> 등.

② 드물게 첫소리 <드>으로 적었다: **טָטִים**(스2:57) <하딜>.

그렇지만, 한결같이 받침 <ㅅ>과 첫소리 <ㅌ>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위 ①의 보기들은 위 2.1.(1)과 2.2.9.(3)을 따라 각각 <갓닷>과 <싯딤>과 <핫투쉬>와 <웃타>로, 위 ②의 **טָטִים**은 <핫틸>⁵³⁾로 고쳐 적을 만하다.

2.2.10. י

(1-1) 낱말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י**를 기본 소리값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모음과 여러 가지로 합한 꼴로 적었다

① 모음 <ㅏ>와 합할 때: **יָאֵיל**(민32:41 등) <야일>, **יָאֵסָנָא**(렘35:3 등) <야아사냐> 등,

② 모음 <ㅓ>와 합할 때: **יֵשׁוּעָ**(스2:6 등) <예수아>, **יָאֵדְיָא**(대상24:20 등) <예드야> 등. **יָאֵדְוָ**(대하9:29Q) <잇도>와 **יָאֵבֵט**(창7:13 등) <야벳>⁵⁴⁾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③ 모음 <ㅣ>와 합할 때: **יִשְׂרָאֵל**(창32:29 등) <이스라엘>, **יָפֵתָא**(수15:43 등) <입다> 등,

④ 모음 <ㅜ>와 합할 때: **יָאֵוָב**(삼상26:6 등) <요압>, **יָאֵוָדָא**(창10:25 등) <육단> 등,

⑤ 모음 <ㅜ>와 합할 때: **יָאֵוָל**(렘38:1) <유갈>, **יָאֵוָדָא**(수21:16) <웃다> 등

⑥ 단순 유성 <쉬와>와 합할 때: **יָאֵוָבָס**(삿19:10 등) <여부스>, **יָאֵדִידִיָא**(삼하12:25) <여디디아> 등인데, 이는 <쉬와>를 <—>로 적는 전통⁵⁵⁾과 통한다. **יָאֵוָדָא**(수10:1 등) <예루살렘>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는 <쉬와>를 <ㅓ>로 적는 전통과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도 <여루살라임>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53) 실제로 느7:59에서는 <하딜>로 적었다.

54) 이에 대해서는 위 0.2.3.(2)①과 각주 14를 보라.

55) 위 1.3.(2)를 보라.

(1-2) 낱말 첫머리 아닌 음절 첫머리에 올 때에는, י를 기본 소리값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1-1)처럼 그 다음 모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의 자음과 여러 가지로 합한 꼴로 적었다. 두 가지 경우만 알아보기로 하자.

① 모음 <א>와 합할 때: אָבְרָהָם(삼하23:32 등) <엘리아바>의 경우에, 둘째 음절의 첫소리 י(<이>)를 앞 음절의 마지막 자음 ל(<ㄹ>)와 합하여 <리>로 적고, 둘째 음절의 모음 <א>를 별도의 음절로 따로 그 다음에 적은 것이다. אָבְרָהָם(왕하1:2 등) <아하시야>의 경우에는, 마지막 음절의 첫소리 י(<이>)와 그 다음 모음 <א>를 합해 <야>(יָ)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앞 음절의 마지막 자음 י(<스>)도 <시>로 적었다.

② 모음 <א>와 합할 때: שִׁירָן(신3:9 등) <시론>의 <론>은, 둘째 음절 첫소리인 י(<이>)가 한편으로는 그 뒤에 붙은 모음 <א>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앞 음절의 마지막 소리인 ר(<ㄹ>)와 한데 어우러진 꼴이다. אֲחִישָׁף(삼하6:3,4) <아효>56)의 <효>도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①의 <엘리아바>는 אָבְרָהָם나 אָבְרָהָם를, <아하시야>는 אָבְרָהָם를, ②의 <시론>은 שִׁירָן을, <아효>는 אֲחִישָׁף을 떠올리게 하므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각각 <엘르야흐바>와 <아하즈야>와 <시르론>과 <아효요>로 고쳐 적을 만하다.

(3) 낱말의 끝에 오는 י의 경우에는,

① 대부분 이것과 그 앞의 모음 <א>(ֹ 또는 ֻ)와 합한 꼴을 <애>로 적지만: חָכֵם(학1:13 등) <학개>, אֲוֵלַי(단8:2,16) <올래>, מִלְמֵ(민13:22 등) <달매>, שָׁרֵי(창11:29 등)<사래>, יָשִׁ(삼상16:1 등) <이새>, בְּרֹחֵי(삼하8:8) <베로대> 등. 다만 אֵי(창12:8 등)는 <애>로 적지 않고 <아이>로 적었다.

② 모음 <א> 다음의 י는 <이>로 적었다: בְּנוֹי(스10:30 등) <빈누이>.

그런데, 위 ①의 אֵי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의 경우에는, י의 존재를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각각 <학가이>와 <올라이>와 <탈마이>와 <사라이>와 <이샤이>와 <베로타이>로 고쳐 적는 것이 더 낫다.

이리하여, 낱말 끝의 י는 그것이 모음 <א>나 <애>(ֹ나 ֻ)와 합하여 장모음 표시로 바뀌지 않은 한, 한결같이 <이>로 적을 수 있다.

(4) 중복점이 찍힌 י는 음역에서 그 중복 사실을 전혀 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דָּנְיֵאל(스8:2 등) <다니엘>, בְּרֵאשִׁית(욥1:1 등)

56) 같은 이름을 <아히오>(대상13:7; 8:31; 9:37) 또는 <아히요>(대상8:14)로도 적었다.

<읍>, אֵלִיּוֹן(수19:42 등) <아얄론> 등. 그렇다 하더라도, דָּנְיֵאל은 <다니엘>로 고쳐적을 만하다. 또 צִוִּיּוֹן(왕상8:1 등) <시온>의 경우에는 중복점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כִּזְיוֹן의 경우처럼 <치운>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11. כ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כ를 첫소리 <ㄱ>으로 적었다: כָּבוֹל(수19:27 등) <가불>, אֶכֶשׁ(삼상21:11등) <아기스>, בְּרָכָה <브라카>(남.대상12:3), אֶשְׁכַּל(창14:13) <에스콜> 등.

그런데, 위 2.1.(1)을 따라 이는 첫소리 <ㅋ>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בְּרָכָה <브라카>(대상12:3)는 <브라카>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כ를

① ב, ז, ג, ס, פ, ש, ת 앞에서 받침 <ㄱ>으로 적거나: עֲבוּבָר(창36:38 등) <악불>, אֶכֶשׁ(수15:44 등) <악십>, מִכְנֹבֵי(스10:40) <막나드배>, עֲבָקָה(수15:16 등) <악사>, מִכְפֵּלָה(창23:9 등) <막벨라>, אֶרְפָּשָׁר(창10:22 등) <아르박삿>, מִכְתֵּשׁ(슥1:11) <막테스> 등.

② ㄱ 앞에서 <그>로 적거나: בְּכֹרִי(삼하20:1 등) <비그리>, זְכוּרִי(출6:21 등) <시그리>, עֲבָרָן(민1:13 등) <오그란> 등.

③ א이나 י 앞에서 첫소리 <ㄱ>으로 적었다: בְּרָכָאֵל(읍32:2,6) <바라겔>, בְּרָכָה(대상3:20 등) <베레가>, שָׂקָה(대상8:10) <사가> 등.

그런데, 위 ②의 경우는 위 2.1.(1)을 따라 <크>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곧, ②의 보기들은 각각 <비크리>와 <지크리>와 <오크란>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③의 경우에는 위 2.1.(1)과 2.2.2.(2)를 따라 <크>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보기들은 각각 <바라크엘>과 <베레크야>와 <사크야>로 고쳐 적을 만하다. 위 ①에서 ג 앞의 כ는 כ의 소리값을 제대로 드러내도록 <크>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מִכְנֹבֵי <막나드배>는 <망나드배>로 발음되어 כ의 본 소리값이 다른 식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마크낫바이>⁵⁷⁾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כ를 א, י, ג, ㄱ 앞에서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 앞에서는 <크>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ㄱ>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כ를 받침 <ㄱ>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אֶחֱיָמָא(출31:6 등) <아히사막>, שָׂרָרָ(단1:7 등) <사드락>.

57) <나드>를 <낫>으로, <배>를 <바이>로 고쳐 적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위 2.2.4.(2)와 2.2.10.(3)②를 보라.

מִלֵּךְ(대상8:35 등) <멜렉>, בָּרֹךְ(렘32:12 등) <바룩>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받침 <ג>과 첫소리 <ג>으로 나누어 적었다: אָכַר(창10:10) <악갓>, סוּכָה(암5:26) <식긱>, סוּכָה(창33:17 등) <숙긱> 등.

그렇지만, 이는 2.1.(1)을 따라 받침 <ג>과 첫소리 <כ>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세 보기는 각각 <악갓>과 <식긱>과 <숙긱>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2.2.12. ל

(1-1) 낱말의 첫머리에 오는 ל은 첫소리 <ㄹ>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לָאָה(창29:16 등) <레아>, לָגִישׁ(수10:32 등) <라기스> 등

(1-2) 낱말의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ל를,

① 보통은 받침 <ㄹ>과 다음 음절의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고: אֱלוֹן(창46:14 등) <엘론>, אֱלֹנִים(스4:7) <비슬람>, אֱלֹנִים(삿1:31) <알람>, אֱלֹנִים(대상2:37,37) <에블랄>, אֱלֹנִים(삿17:7 등) <베들레헴>, אֱלֹנִים(삼상21:2 등) <아히멜렉>(삿1:31) 등,

② 유성 <쉬와>가 바로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지만: כְּלוּב(대상4:11 등) <글룹>, אֱשְׁקִלוֹן(삿1:18 등) <아스글론>, אֱלִיפְלֵחוֹ(대상15:18,21) <엘리블레후> 등.

③ 드물게 첫소리 <ㄴ>으로 적었다: אֱשְׁבִי לְחָם(대상4:22) <야슈비네헴>, אֱשְׁבִי לְחָם(삼상23:28) <셀라하마느긱>, אֱשְׁבִי לְחָם(왕하23:33 등) <립나>.

①과 ②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고, ③의 세 보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 <야슈빌레헴>, <셀라으함마홀르긱>, <리블라>⁵⁸⁾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ל를,

① ל, לָ, לָ, לָ, לָ, לָ, לָ 앞에서 받침 <ㄹ>로 적거나: בְּלֹד(욥2:11 등) <빌닷>, אֱלֹנִים(대상12:13 등) <엘사밧>, אֱלֹנִים(느3:15 등) <골호세>, אֱלֹנִים(호10:14) <살만>, אֱלֹנִים(대상4:3) <하술렐보니>, אֱלֹנִים(출6:22 등) <엘사반>, אֱלֹנִים(대상7:37) <실사> 등,

② ל 앞에서 받침 <ㄹ>과 <르>로 나누어 적거나: אֱלֹנִים(창37:25 등) <길르앗>, אֱלֹנִים(수15:38) <딜르안>, אֱלֹנִים(출6:23 등) <엘르아살>⁵⁹⁾, אֱלֹנִים(민32:3 등) <엘르알레> 등.

58) 민34:11에서는 אֱלֹנִים를 <리블라>로 적었다.

59) 삼상7:1에서는 <엘리아살>로 적었다.

③ א이나 י나 ע 앞에서 받침 <ㄹ>과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거나: 177ב(왕하20:12 등) <발라단>, אֶלְיָא(민1:14 등) <엘리아삽>, אֶלְיָא(왕하 23:34 등) <엘리아김>⁶⁰⁾, אֶלְיָבָא(삼하23:32 등) <엘리아바>, אֶלְיָדָע(삼하 5:16 등) <엘라다>, אֶלְיָא(삼상17:4 등) <골리앗>, אֶלְיָוֵינִי(대상4:36 등) <엘료에내>⁶¹⁾, אֶלְיָב(민22:5 등) <발람>, אֶלְיָוֵי(대상12:6) <엘루새> 등.

④ א이나 י 앞에서 첫소리 <ㄹ>로 적거나: אֶלְיָא(출31:2 등) <브사렐>, אֶלְיָב(대상12:5[6]) <브아라>, אֶלְיָוֵי(룻1:2,5; 4:9) <기론> 등.

⑤ 예외적으로 아예 적지 않은 경우도 있다: אֶלְיָא(느11:12) <블라야>.

그런데, 위 ③의 보기들은 위 2.2.1.(1)과 2.2.2.(2)를 따라 각각 <발르야단>, <엘르야삽>, <엘르야김>⁶²⁾, <엘르야흐바>, <엘르야다으>, <골르앗>, <엘르요네>, <빌르암>⁶³⁾, <엘르우자이>으로 적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위 ④의 보기도 각각 <브찰르엘>과 <브알르야>와 <킬르온>으로 적을 만하다. 위 ⑤의 אֶלְיָא도 <플랄르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ㄹ를 보통은 받침 <ㄹ>로 적지만, א, י, ע 앞에서는 받침 <ㄹ>과 <르>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그런데, ㄹ 뒤에 ㄴ가 오는 경우는 ㄴ가 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지만, 후음 가운데서 א나 א 앞에 오는 음절 끝소리 ㄹ는 - ①의 보기 가운데 하나인 אֶלְיָא <골호세>에서 알 수 있듯이 - 받침 <ㄹ>로 적어야 하므로, 받침 <ㄹ>와 <르>로 나누어 적는 경우를 후음이나 반자음 앞의 경우라고 일 반화할 수는 없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ㄹ를 받침 <ㄹ>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 들일 만하다: אֶלְיָב(창4:20) <야발>, אֶלְיָב(대상11:35) <엘리발>, אֶלְיָב(단 8:16 등) <가브리엘>, אֶלְיָב(창10:10 등) <바벨>, אֶלְיָב(대상24:15 등) <헤실>, אֶלְיָב(대하17:7) <벤하일>, אֶלְיָב(민13:23 등) <에스골>, אֶלְיָב(왕상5:11 등) <갈골>, אֶלְיָב(창10:23 등) <홀>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받침 <ㄹ>과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אֶלְיָב(대상4:37 등) <알론>, אֶלְיָב(창 14:1,9) <엘라살>, אֶלְיָב(왕하15:10 등) <살룸> 등.

60) 골 대하36:4; 느12:41; 사22:20; 36:3,11,22; 37:2. 그렇지만, 왕하18:18,26,37; 19:2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61) 대상 3:23,24에서는 <에료에내>로 적었다.

62) 왕하18:18,26,37; 19:2에서는 <엘리아김>으로 적었다.

63) 실제로 대상6:70에서는 <빌르암>으로 적었다.

2.2.13. מ, ׀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מ을

① 대부분 첫소리 <׀>으로 적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מרה (출15:23 등) <마라>, כמשו (삿11:24 등) <그모스>, אבימאל (창10:28 등) <아비마엘>, שבמה (민32:38 등) <십마> 등.

② 예외적으로 <׀>으로 적은 경우도 있다: רוממתי עזר (대상25:4,31) <로암디에셀>. 이는 <로맘디에셀>로 고쳐 적어야 할 것이다⁶⁴).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מ을,

① ג, ז, ט, ו, ש 앞에서 받침 <׀>으로 적거나: שממר (삿3:31; 5:6) <삼갈>, גמזו (대상28:18) <김소>, חמטה (수15:54) <흠다>, דמנה (수21:35) <딤나>, נמשי (왕상19:16 등) <님시> 등,

② ע, ל, ר 앞에서 <מ>로 적거나: שמעון (창29:33 등) <시므온>, יקמעם (대상23:19 등) <여가므암>, ימלה (대상4:34) <야믈렉>, ימה (왕상22:8,9) <이믈라>, אמרפל (창14:1,9) <아므라벨>, ממה (창13:18 등) <마므레>, נמרי (민25:14 등) <시므리>, נמרד (창10:8,9) <니므롯> 등,

③ א, י, ע 앞에서 첫소리 <׀>으로 적거나: שממר (창14:2) <세메벨>, חמאל (렘32:7 등) <하나멜>, נמה (느1:1 등) <느헤미야>, שלמה (렘37:3 등) <셀레마>, עמד (수19:26) <아맛> 등.

④ ל 앞에서는 <마>로 적었다: גמליאל (민1:10 등) <가말리엘>.

그렇지만, 위 ②와 ③에서 א, י, ע이 מ 뒤에 오는 경우에는 מ을 굳이 <מ>로 적지 않아도 괜찮다. 곧, ②의 보기인 שמעון <시므온>과 יקמעם (대상 23:19 등) <여가므암>, ③의 보기인 שממר <세메벨>과 חמאל <하나멜>과 חמה <느헤미야>와 שלמה <셀레마>와 עמד <아맛>은 각각 <섬온>과 <여가므암>과 <셈에벨>과 <하남엘>과 <느헬야>와 <셀렘야>와 <암앗>으로 적더라도, א과 י와 ע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와는 달리, מ이 ל이나 ר 앞에 있을 때는 발음의 편의상 <מ>로 적을 필요가 있다. 곧, ②의 보기인 ימה <이믈라>와 נמרד <니므롯>을 각각 <임라>와 <님롯>으로 적는다면, 이는 <임나>와 <님낏>으로 발음되어 ל이 ׀으로 오해될 수 있다. 위 ④의 보기인 גמליאל <가말리엘>은 위 ②의 보기인 ימלה <야믈렉>의 경우처럼 <가믈리엘>로 고쳐 적을 만하다.

64)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렇게 고쳐놓았다.

이리하여, 낱말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이 ל이나 ׀ 앞에 있을 때는, 이를 <므>로 적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받침 <ㅁ>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을

① 보통은 받침 <ㅁ>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יָתַם(삿9:5 등) <요담>, שָׁחַם(대상24:27) <소함>, שָׁם(창5:32 등) <셈>, שָׁמַם(느2:19 등) <계셈>, רָפִידִים(출17:1 등) <르비딤>, פָּתַם(출1:11) <비돔>, הָרוּם(대상4:8) <하름> 등,

② 예외적으로 받침 <ㄴ>으로 적기도 한다: שָׁשָׁ(수19:47) <레센>. 이는 <레셈>으로 고쳐적어야 한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ㅁ>과 첫소리 <ㅁ>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אֵל עֲמִנוּ(사7:14) <임마누엘>, עֲוֹנוֹ(삼상11:11 등) <암논>, תּוֹמוֹ(겔8:14) <담무스>, אֵמֶר(스2:59 등) <임펠>, עֲמָה(수19:30) <움마> 등.

② 드물게 그냥 첫소리 <ㅁ>으로만 적기도 한다: שָׁמַם(창15:2 등) <다메섹>, שָׁמָא(대상7:37) <사마>, הַמְחַלְקוֹת הַשְּׁלַע(삼상23:28) <셀라하마느곳>. 이 경우도 앞의 경우를 따르는 것이 낫다. 곧, 위 세 보기는 각각 <담메섹>과 <삼마>65)와 <셀라으함마홀로곳>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14. ׀, ׀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을

① 보통은 첫소리 <ㄴ>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נָבוֹת(왕상21:16 등) <나붓>, מְנַחֵם(왕하15:14 등) <므나헬>, יוֹנָדָב(삼하13:3 등) <요나답>, אֲסַנָּת(창41:45 등) <아스낫>, חֲשַׁבְנָה(느3:10 등) <하삽느야>, בְּנֵאֵל(수15:11; 19:33) <압느엘>, פִּינָח(출6:25 등) <비느하스> 등,

② ל이나 ׀ 뒤에서는 <ㄴ>으로 적었다: אֵלְאָם(대상11:46) <엘라암>, אֵלְנָתָן(렘26:22 등) <엘라단>, כָּלְנֶה(창10:10) <갈레>, סַמְגַרְנָבו(렘39:3) <삼갈르보> 등. 이는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경우도 그 ׀이 ל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냥 첫소리<ㄴ>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네 보기는 <엘나암>과 <엘나탄>과 <갈네>와 <삼가르느부>66)로 고쳐 적을 만하다.

65) שָׁמָא를 삼하23:11에서는 <삼마>로 적었다.

66) 개역개정판에서는 סַמְגַרְנָבו(렘39:3)를 <삼갈네부>로 적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נ**을

① **א, ב, ג, ד, ה, ו, ז** 앞에서 받침 <ל>으로 적거나: **שְׁלֵמָאָסָר**(왕하17:3 등) <살만에셀>, **סַבְלַט**(느2:10 등) <산발랏>, **דַּנְהָבָה**(창36:32 등) <단하바>, **סַבְחָרִיב**(왕하18:13 등) <산헤립>, **תַּנְחֻמָּת**(왕하25:23 등) <단후뻬>, **סַסְנָה**(수 15:31) <산산나>, **עַנְתְּחָה**(대상8:24) <안도디아> 등,

② **ע**이나 **ר** 앞에서 <נ>로 적거나: **בְּנֵאָא**(대상8:37 등) <비느아>, **עֵין רוֹמֶן**(느11:29) <에느림몬>, **עֵין רֹגֵל** <에느로겔>(삼하17:17⁶⁷); 왕상1:9).

③ **א, י, ע** 앞에서 첫소리 <ל>으로 적었다: **שְׁנָאָב**(창14:2) <시납>, **חַנְנָאֵל**(렘31:38; 등) <하나넬>, **נְתַנְאֵל**(민1:8 등) <느다넬>, **בְּנֵ-אוֹנִי**(창35:18) <베노니>, **בְּנֵימִין**(창35:18 등) <베냐민>, **שְׁבַנְיָה**(느9:4 등) <스바냐>, **שְׁנָעָר**(사11:11 등) <시날> 등.

그런데, 위 ②에서 **ע**이 **נ** 뒤에 오는 경우에는 ③의 경우처럼 **נ**을 굳이 <נ>로 적지 않아도 괜찮다. 곧, ②의 보기 가운데 하나인 **בְּנֵאָא**(대상8:37 등) <비느아>는 <빈아>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위 ③의 경우에는 **נ** 뒤에 오는 **א, י, ע**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נ**의 소리값 <ל>을 ①의 경우처럼 받침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שְׁנָאָב**<시납>과 **חַנְנָאֵל**<하나넬>과 **נְתַנְאֵל**<느다넬>과 **בְּנֵ-אוֹנִי**<베노니>와 **בְּנֵימִין**<베냐민>과 **שְׁבַנְיָה**<스바냐>와 **שְׁנָעָר**<시날>는 각각 <쉬압>과 <하난엘>과 <느탄엘>과 <벤오니>와 <빈야민>과 <스반야>과 <쉬아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와는 달리, **ר** 앞의 **נ**을 그냥 받침 <ל>으로만 적으면, 실제로는 <ר>로 발음되어 **ל**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נ>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②의 보기 가운데 하나인 **עֵין רוֹמֶן** <에느림몬>의 경우에 이것을 <엔림몬>으로 적는다면 <엘림몬>으로 발음된다. 이러한 점은, 히브리어 고유명사에서는 보기를 찾아볼 수 없지만, **נ** 다음에 **ל**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위 2.2.13.(2)에서 **מ**이 그러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의 **נ**은 그 뒤에 **ר**이나 **ל**이 올 때에만 <נ>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ל>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ן**을 받침 <ל>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דָּן**(창14:14 등) <단>, **עֵדֵן**(창2:8 등) <에덴>, **עֵבְרוֹן**(수19:28) <에브론>, **דָּוִדָּן**(대상16:41 등) 등.

67) 난하주에 ‘로겔 샘’이라고 주를 붙여 놓았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ㄴ>과 첫소리 <ㄴ>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נָחַח**(삼상1:2 등) <한나>, **נִבְנִי**(느11:15) <분니>, **נָנְנָה**(삼상1:2 등) <브닌나>, **נָנְנָה**(대상7:38 등) <여분네> 등,

② 예외적으로 첫소리 <ㄴ>으로만 적은 경우도 있다: **נָנְנָה**(삼상14:4) <세네>. 이도 <센네>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15. ס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ס을 첫소리 <ㅅ>으로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סִין**(출16:1 등) <신>, **סָאָס**(왕상15:8 등) <아사>, **סָאָס**(출1:11 등) <라암셋> 등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 ס을

① **ב**, **ג**, **כ**, **ל**, **נ**, **פ**, **ק**, **ת** 앞에서는 <스>로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סָאָס**(삼하23:34) <아하스배>, **סָאָס**(신3:17 등) <비스가>, **סָאָס**(창11:29) <이스가>, **סָאָס**(창10:14 등) <가슬루힘>, **סָאָס**(스2:50) <아스나>, **סָאָס**(예9:7) <아스바다>, **סָאָס**(왕하19:37 등) <니스룩>, **סָאָס**(예2:7 등) <에스더> 등.

② **י** 앞에서는 첫소리 <ㅅ>으로 적었다: **סָאָס**(대하17:16) <아마시야>. 그렇지만, 이도 위 2.2.2.(2)를 따라 <아마스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ס을

① 보통은 <스>로 적었고: **סָאָס**(출6:25 등) <비느하스>, **סָאָס**(예1:10) <가르가스>, **סָאָס**(사30:4) <하네스>, **סָאָס**(삿8:13) <헤레스>, **סָאָס**(렘40:14) <바알리스>, **סָאָס**(암1:1 등) <아모스> 등,

② 드물게 받침 <ㅅ>으로 적었다: **סָאָס**(출1:11 등) <라암셋>.

①은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고, ②의 **סָאָס**도 ①의 경우를 따라 <라암세스>로 고쳐적는 것이 좋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① 보통은 받침 <ㅅ>과 첫소리 <ㅅ>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도 받아들일 만하다: **סָאָס**(예2:7) <하닷사>, **סָאָס**(출17:7 등) <맛사>, **סָאָס**(민33:21,22) <릿사> 등

② 드물게 첫소리 <ㅅ>으로 적었다: **סָאָס**(느3:3) <하스나아>, **סָאָס**(스2:55) <하소베렛>. 이 경우도 ①의 경우처럼 각각 <핫스나아>와 <핫소페렛>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16. ע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 ע을

① 보통은 첫소리 <ֹ>으로 적지만: עֹבְדָה(대상9:16) <오바다>, עֵיָקָל(창 36:23 등) <에발>, בְּרִיָּעָה(창46:17 등) <브리야>, אֵיֶעֶזֶר(민26:30) <이에셀>, עֵיֶלַי(대상11:29) <일래>, עֵרוֹעֶר(신3:12 등) <아로엘> 등,

② 드물게 첫소리 <ג>으로 적거나: עָזָה(창10:19 등) <가사>, עֲמֹרָה(창 10:19 등) <고모라>,

③ 첫소리 <ח>으로도 적었고: עֲבָרִי(창14:13 등) <히브리> 등,

④ 더러 음절 끝소리 כ, ג, ד, ל, מ, נ, פ, ש 뒤에서는 아예 적지 않고, ע 의 모음을 이런 자음에 바로 붙여 적었다: תְּבַעֲרָה(민11:3; 신9:22) <다베라>, כַּפְּוֹעֵי־אֵל(민1:13 등) <바기엘>, תְּדַעַל(창14:1,9) <디달>, אֵלֶעֶזֶר(대상12:6) <엘 루새>, עֲמָטָה(수19:26) <아맛>, שִׁנְעָר(사11:11 등) <시날>, שִׁפְעִי(대상4:37) <시 비>, אֲשַׁעֵן(수15:52) <에산> 등⁶⁸⁾.

그렇지만, 위 ②와 ③의 경우에는 ע이 ג이나 ה 또는 ח로 오해되지 않도록 ①과 마찬가지로 첫소리 <ֹ>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עָזָה와 עֲמֹרָה와 עֲבָרִי 는 각각 <앗자>와 <아모라>와 <이브리>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위 ④의 경우 가운데서 מ이나 נ이 ע 앞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⁶⁹⁾ 위 2.2.2.(2), 2.2.3.(2), 2.2.4.(2), 2.2.2.12.(2)와 아래 2.2.17.(2), 2.2.22.(2)에서 보듯이, ע의 존재를 <ֹ>으로 표시하고, 그 앞의 자음 아래에 도움 모음 <—>을 붙여 적 는 것이 좋다. 곧, 그 보기 가운데 עֲמָטָה와 שִׁנְעָר⁷⁰⁾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타브에라>, <파그이엘>, <티드알>, <엘르우자이>, <쉬프이>, <에쉬안>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ע을

① ד, מ, נ, ש 앞에서는 <아>로 적거나: רַעְמָה(대상4:21) <라아다>, רַעְמָה(창10:7 등) <라아마>, תְּעַנֶּה(수12:21 등) <다아낙>, מַעֲשֵׂי(대상9:12) <마아새> 등,

② כ, ד, ל 앞에서는 전혀 적지 않았다: אֵבֶס(대상2:55 등) <야베스>, לַעֲדָן(대상7:26 등) <라단>, אֵלָם(창36:5 등) <알람> 등.

68) 이에 대해서는 위 2.2.2(2)③, 2.2.3(2)③, 2.2.4(2)③, 2.2.12(2)③, 2.2.13(2)③, 2.2.14(2)③과 아래 2.2.17(2)③, 2.2.22(2)②를 보라.

69) 이에 대해서는 위 2.2.13.(2)와 2.2.14.(2)를 보라.

70) 이에 대해서는 위 2.2.14 (2) ③을 보라.

그렇지만, ①의 경우에는 **ו**가 **וּ**, **וַ**, **וֹ** 가운데 하나로 오해될 수 있고, ②의 경우에는 **ע**의 존재가 무시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두 경우 모두 <으>로 적는 것이 낫다. 곧, ①의 보기들은 각각 <라으다>와 <라으마>와 <타으낙>과 <마으샤이>로, ②의 보기들은 <야으베츠>와 <라으단>과 <야으람>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ע**을 전혀 적지 않았다: **מִשֶׁע**(대상2:42) <메샤>, **אֲרַבָּע**(수14:15 등) <아르바>, **בְּאֵר שָׁבַע**(창26:23 등) <브엘세바>, **שֶׁלֶע**(사16:1 등) <셀라>, **וַשִׁעַ**(창38:2 등) <수아>, **אֲשַׁבֵּעַ**(대상4:21) <아스베아> 등.

그렇지만, 이도 위 (2)와 마찬가지로 <으>로 적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위 낱말들은 각각 <메샤으>, <아르바으>, <브엘세바으>, <셀라으>, <슈아으>, <아쉬베아으>로 고쳐적을 수 있다.

2.2.17. כ, ק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כ**를 첫소리 <ㅅ>으로 적었다: **בָּקָה**(왕하15:25 등) <베가>, **עֹבֵל**(대하27:3 등) <오벨>, **עֹרְבָה**(룻1:4,14) <오르바> 등.

그렇지만, 이는 위 2.1.(1)을 따라 첫소리 <ㅈ>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세 보기는 각각 <페카흐>와 <오펠>과 <오르파>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 **כ**를

① **ט, מ, נ, ס, צ, ק, ת** 앞에서 받침 <ㅅ>으로 적거나: **שִׁפְטָן**(민34:24) <십단>, **שִׁפְמוֹת**(삼상30:28) <십못>, **חֲפְנֵי**(삼상1:3 등) <흙니>, **וַפְסִי**(민13:14) <웁시>, **חֲפְצֵי־בָהּ**(왕하21:1) <헵시바>, **דֹּפְקָה**(민33:12,13) <돕가>, **נִפְתָּלִי**(창30:8 등) <납달리> 등,

② **ר, ח, ל, ג, ר** 앞에서는 <브>로 적거나: **יִבְדְּאָה**(대상8:25) <이브드야>, **צְלוֹבְהָט**(느26:33 등) <슬로브핫>, **אֵבְלָל**(대상2:37) <에블랄>, **עֹבְנִי**(수18:24) <오브니>, **אֶבְרַיִם**(창48:5 등) <에브라임> 등,

③ **י** 나 **ע** 앞에서는 첫소리 <ㅅ>으로 적거나: **כִּסְפֵּיָא**(스8:17,17) <가시바>, **שִׁפְעִי**(대상4:37) <시비>.

④ 예외적으로 받침 <ㅅ>과 첫소리 <ㅅ>으로 나누어 적었다: **שִׁפְרָה**(출1:15) <십브라>.

그렇지만, 위 ①의 보기 가운데 **חֲפְנֵי** <흙니>는 <흙니>로 발음되어 **נ**이 **מ**으로 오해 될 수 있으므로, ②의 보기 가운데 **עֹבְנִי**의 경우처럼 <호프니>로 고쳐 적는 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①의 보기 가운데 **שִׁפְמוֹת** <십못>도

<심뫼>으로 받음되어 ן가 ן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시프뫼>으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이와는 반대로, ②의 ןִּפְרָא와 는 ①의 보기 가운데 ןִּפְרָא의 경우처럼 <입드야>로 적는 것이 더 낫다. 또 위 ③의 두 보기는 위 2.2.2.(2)를 따라 각각 <카시프야>와 <시프야>로 고쳐 적을 만하다. 위 ④의 ןִּפְרָא는 위 ②를 따라 그냥 <쉬프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ן를 ן, ן, ן, ן, ן, ן, ן 앞에서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 앞에서는 <프>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ㅁ>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ן를 받침 <ㅁ>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ןִּפְרָא(왕하18:18 등) <아삽>, ןִּפְרָא(대상2:51) <하렘>, ןִּפְרָא(수19:33) <헬렘>, ןִּפְרָא(대상3:24 등) <엘리아삽>, ןִּפְרָא(사19:13 등) <놉>, ןִּפְרָא(신1:1) <습>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받침 <ㅁ>과 첫소리 <ㅁ>으로 나누어 적었다: ןִּפְרָא(삿4:4) <랍피뫼>, ןִּפְרָא(민22:2 등) <십불>, ןִּפְרָא(수12:17 등) <답부야>, ןִּפְרָא(대상24:13) <흡바> 등.

그렇지만, 이는 위 (3)과 2.1.(1)을 따라 받침 <ㅁ>과 첫소리 <ㅁ>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랍피뫼>과 <칩포르>와 <답푸야호>와 <흡파>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18. ן, ן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ן를 첫소리 <ㅁ>으로 적었다: ןִּפְרָא(삼하8:17 등) <사뫼>, ןִּפְרָא(대상8:37 등) <아셀>, ןִּפְרָא(삼상10:2) <셀사> 등.

그렇지만, 이는 위 2.1.(1)을 따라 첫소리 <ㅁ>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차뫼>과 <아셀>과 <첼차호>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 ן를

① ן, ן, ן, ן, ן, ן 앞에서 보통은 <스>로 적지만: ןִּפְרָא(대상7:7) <에스본>, ןִּפְרָא(출6:18 등) <이스할>, ןִּפְרָא(민34:5) <아스몬>, ןִּפְרָא(수11:8 등) <미스베>, ןִּפְרָא(수15:39 등) <보스갓>, ןִּפְרָא(창36:36 등) <보스라> 등,

② ן이나 ן 앞에서 첫소리 <ㅁ>으로 적었다: ןִּפְרָא(창17:19 등) <이삭>, ןִּפְרָא(왕하12:22 등) <아마샤>, ןִּפְרָא(왕상9:26 등) <에시온게벨> 등.

그렇지만, ①의 경우는 위 2.1.(1)을 따라 <츠>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①의 보기들은 각각 <에츠본>과 <이츠하르>와 <아츠몬>과 <미츠페>와 <보

츠>과 <보츠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②의 경우는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위 2.1.(1)을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위 2.2.8.(2)이나 2.2.2.(2)를 따라, 한결 같이 <츠>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②의 보기들은 각각 <이츠학>과 <아마츠야>와 <에츠온게베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פ를 <스>로 적었다: מַעֵץ(대상2:27) <마아스>, וּבֹצֵץ(삼상14:4) <보세스>, פָּרֵץ(창46:12 등) <베레스>, קָצִיץ עֵמֶק(수18:21) <에멕 그시스>⁷¹⁾, אֲמוֹץ(왕하19:2 등) <아모스>, עוֹץ(창10:23 등) <우스> 등.

그렇지만, 이는 위 2.1.(1)을 따라 <츠>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마아츠>와 <보체츠>와 <페레츠>와 <에멕크치츠>와 <아모츠>⁷²⁾와 <우츠>로 고쳐 적을 만하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① 보통은 첫소리 <스>으로만 적지만: חַבְצִינָה(렘35:3) <하바시냐>, שֶׁשְׁבָצָר(스1:8 등) <세스바살>, בֵּית פְּצִיץ(수19:21) <벤 바세스>⁷³⁾, וּבֹכֵד וְנֹאצָר(왕하24:1 등) <느부갓네살> 등,

② 때로는 받침 <스>과 첫소리 <스>으로 나누어 적었다: חֶלְקֶת הַצִּירִים(삼하2:16) <헬갓핫수림>, שֶׁנֹּאצָר(대상3:18) <세낫살>.

그렇지만, 위 2.1.(1)을 따라, 이는 한결같이 받침 <스>과 첫소리 <츠>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①의 네 보기는 각각 <하밧친야>와 <세쉬밧차르>와 <벧팻체츠>와 <느부카드넛차르>로, 위 ②의 두 보기는 각각 <헬갓핫추림>과 <셴앗차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2.2.19. פ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פ를 첫소리 <가>으로 적었다 : קָדֵשׁ(창14:7 등) <가데스>, רָקֵם(민31:8 등) <레멤>, אַחִיקָם(왕하22:12 등) <아히감>, אֵלְקָנָה(삼상1:1 등) <엘가나>, בִּדְקָר(왕하9:25) <빋갈>, בְּרוֹקוֹם(스2:53 등) <바르고스>, אֲשַׁקְלוֹן(삿1:18 등) <아스글론> 등.

그렇지만, 이는 위 2.1.(1)을 따라 첫소리 <카>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카데쉬>와 <레멤>과 <아히감>과 <엘카나>와 <빋카르>와 <파르코스>와 <아쉬클론>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פ를

71) 표준새번역에서는 붙여 썼다.

72) 이리함으로써 이 이름을 예언자 아모스(אִמּוֹץ)의 이름과 구별해서 음역할 수 있다.

73) 표준새번역에서는 붙여 썼다.

① **כ**나 **ח** 앞에서 받침 <ך>으로 적거나: **כַּבֹּבֵב**(스2:51 등) <박복>, **תַּקְחָה**(대하34:22 <크레>) <독핫> 등.

② **ל**이나 **ר** 앞에서는 <크>로 적거나: **לְקָלָה**(창10:27 등) <디클라>, **אֶקְרוֹן**(수15:11 등) <에그론>.

③ **ו**나 **י** 앞에서 첫소리 <ך>으로 적었다: **תַּקְוָה**(왕하22:14 등) <디과>, **בַּבְּרָכָה**(느11:17 등) <박부가>.

①의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지만, ②의 경우는 위 2.1.(1)을 따라 <크>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곧, 그 두 보기는 각각 <디클라>와 <에크론>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③의 경우도 ②의 경우처럼 함으로써, **ו**나 **י**의 존재를 표시할 수 있다. 곧, 그 두 보기는 각각 <티크와>와 <박부크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ך**가 **ו**, **י**, **ל**, **ר** 앞에 있을 때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전동음 앞에 있을 때는, 그 **ך**를 <크>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ך**를 <ך>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בָּרַךְ**(삿4:6 등) <바락>, **שֹׁרֵךְ**(삿16:4) <소렉>, **בִּרְךָ**(삿1:4 등) <베섹>, **אָבִיךָ**(삿1:31) <아빅>, **צָדִיק**(삼하8:17 등) <사독> 등.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받침 <ך>과 첫소리 <ך>으로 나누어 적었다: **מַמְלַכְתּוֹ**(합1:1 등) <하박국>, **שְׁקֵט**(삼하23:26 등) <익게스>, **הַקּוֹס**(대상24:10 등) <학고스>, **בִּקְרִי**(민34:22 등) <북기> 등.

그렇지만, 이는 위 (3)과 2.1.(1)을 따라 받침 <ך>과 첫소리 <ך>으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네 보기는 각각 <하박국>과 <익케쉬>와 <학코츠>와 <북기>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2.20. ר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ר**를 첫소리 <ㄹ>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רָמָה**(삿19:13 등) <라마>, **אֲבִירָם**(민16:1 등) <아비람>, **עֲבָרָה**(수18:23 등) <오브라> 등.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ר**를

① **ח**, **כ**, **מ**, **ק** 앞에서 받침 <ㄹ>로 적거나: **חָרַס**(왕하22:14) <할하스>, **בְּרַכְמִישׁ**(사10:9 등) <갈그미스>, **תִּרְמָה**(창10:3) <도갈마>, **קָרָר**(삿8:10) <갈골> 등,

② **ב**, **ג**, **ד**, **ה**, **ו**, **ז**, **ח**, **ט**, **י**, **כ**, **ל**, **מ**, **נ**, **ס**, **פ**, **צ**, **ק**, **ש**, **ת** 앞에서 <르>로 적거나: **חַבְּוֹנָה**

(예1:10) <하르보나>, אָרְבּוּב(신3:4 등) <아르굽>, אָרְוִדוֹן(대상2:18) <아르돈>, תַּרְהַקָּה(왕하19:9 등) <디르하가>, בְּרִיזִית(대상7:31) <비르사잇>, יִרְחַע(대상2:34,35) <아르하>, כַּרְכַּס(예1:10) <가르가스>, מִרְמָה(대상8:10) <미르마>, אֲרִנּוֹן(민21:13 등) <아르논>, עֲרַבָּה(룻1:4,14) <오르바>, אֲרָצָא(왕상16:9) <아르사>, בְּרִקּוֹס(스2:53 등) <바르고스>, בְּרִשְׁעֵי(창14:2) <비르사>, קָרְתָּן(수21:32) <가르단> 등,

③ א, י, ע 앞에서 첫소리 <ㄹ>로 적거나: פְּרָאִים(수10:3) <비람>, מְרִים(출15:20 등) <미리암>, אֲמַרְיָה(대상5:33[6:7] 등) <아마라>, נָכַח פְּרַעֲהַ(왕하23:29 등) <바로느고> 등,

④ ר, ז, ח, מ, ש, ת 앞에서 아예 적지 않았다: יַרְדֵּן(민26:3 등) <요단>74), בְּרִזְלֵי(삼하17:27 등) <바실래>, אֲחַרְחַל(대상4:8) <아하헬>, פְּרַמְשֵׁתָא(예9:9) <바마스다>, תַּרְשִׁישִׁי(창10:4 등) <다시스>, אֲרַתְחַשְׁטָא(스4:7 등) <아닥사스다> 등.

그런데 음절 끝의 ר를 ל과 구별해서 음역하려면, ①의 보기 חַרְחַס와 כַּרְכַּמִּישׁ와 תַּרְהַקָּה와 קָרְקַר는 위 ②의 보기인 יִרְחַע와 כַּרְכַּס와 מִרְמָה와 רִקּוֹס처럼 각각 <하르하스>와 <카르크미쉬>와 <토가르마>와 <카르크르>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위 ③의 경우는 위 2.2.2.(2)를 따라 ר를 <르>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보기들은 각각 <피르암>과 <미르암>과 <아마르야>와 <파르오 느코>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④의 경우도 그 보기들은 ②의 경우를 따라 각각 <아르덴>과 <파르질라이>75)와 <아하르헬>과 <파르마쉬타>와 <타르쉬쉬>와 <아르타흐샤스타>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ר는 한결같이 <르>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ר를

① 주로 받침 <ㄹ>로 적지만: תַּמָּר(창38:6 등) <다말>, פְּרַפְרֵר(왕하5:12) <바르발>, אֲבִנֵּל(삼상17:55 등) <아브넬>, חֶבֶל(창46:17 등) <헤벨>, עִיר(대상7:12) <일>, חֲצוֹר(수11:10 등) <하술>, אֱלִישָׁר(민1:5 등) <엘리술> 등,

② 더러 <르>로 적거나: אֶר(민21:15 등) <아르>, עֶר(민26:19 등) <에르>76), הֶר(민20:22 등) <호르>, אֶרֶד(민26:40) <아렛> 등,

③ 바로 앞의 장모음 와 합해서 <어>로 적기도 했다: אֶסְתֵּר(예2:7 등)

74) 이에 대해서는 위 1.2 (5)를 보라.

75) 예2:61; 느7:63에서는 <바르실래>로 적었다.

76) 같은 이름을 창38:3,6,7; 46:12,12에서는 <엘>로 적었다.

<에스더>.

그렇지만, 위 (2)에서 말한 바처럼, 낱말 끝의 **ל**과 구별하기 위해 한결같이 <르>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①의 보기들은 각각 <타마르>와 <파르파르>와 <아브네르>와 <헤베르>와 <이르>와 <하초르>와 <엘리추르>로, 위 ③의 보기인 **אֶסְתֵּר**는 <에스테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2.2.21. ש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ש**을 첫소리 <스>으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שָׂרָק**(삿16:4) <소렉>, **בְּוֹשֶׁר**(삼상30:9 등) <브솔>, **עֵשֶׂק**(창26:20) <에섹>, **אֶמְסָא**(삼하17:25 등) <아마사> 등.

(2) 음절의 끝이 아닌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ש**을

① **מ**, **ר**, **ת** 앞에서 <스>로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יִשְׂרָאֵל**(창32:29 등) <이스라엘>, **בְּשֵׂמֶת**(창26:34 등) <바스맛>, **אֶרְתַּחְשֶׁשְׁתָּה**(스4:7) <아닥사스다>.

② **ח** 앞에서 첫소리 <스>으로 적었다: **יִשְׁחָק**(렘33:26 등) <이삭>. 이도 앞 경우처럼 <이스학>으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ש**을 <스>로 적었는데, 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מִכְמָשׁ**(삼상13:2 등) <믹마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받침 <스>과 첫소리 <스>으로 나누어 적었는데, 이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다: **מֵשָׂא**(창25:14 등) <맛사>, **יִשְׁשָׁרָר**(창30:18 등) <잇사갈> 등.

2.2.22. ש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ש**을 첫소리 <스>로 적었다 : **שָׂאוּל**(창36:37 등) <사울>, **עֵשֶׂק**(대상8:39) <에섹>, **אֲבִישׁוּעַ**(대상8:4 등) <아비수아>, **בִּרְשָׁע**(창14:2) <비르사>, **שׂוּא**(대상 2:49 등) <스와> 등.

그런데, 앞 2.1.(1)과 1.3에서 이미 말했듯이, **ש**이 모음 <아>, <에>, <이>, <우>, <오> 및 유성 <쉬와>와 합할 때, 각각 <샤>, <세>, <쉬>, <쇼>, <슈>, <쉬>로 적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위의 보기들은 각각 <샤울>과 <에섹>과 <아비슈아으>와 <비르샤으>와 <쉬와>로 고쳐 적을 만하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ש**을

① **ס** 앞에서 받침 <스>으로 적거나: **עֲמֻשָּׁי**(느11:13) <아맛새>.

② **ב**, **ח**, **ל**, **מ**, **פ**, **ת** 앞에서 <스>로 적거나: **חֶשְׁבֹן**(민21:25 등) <헤스본>, **בַּשְּׁחָר**(렘20:1 등) <바스홀>, **בְּשֵׁלָם**(스4:7) <비슬람>, **חֶשְׁמוֹן**(수15:27) <헤스몬>.

אָשָׁא(느11:21) <기스바>, וַשְׁתִּי(에1:9 등) <와스디>,

③ א, י, ע 앞에서 첫소리 <א>으로 적거나: מִשְׁאָל(수19:26 등) <미살>, אַרְשָׁי(대상8:27) <야아레스야>, קִישִׁיִן(수19:20 등) <기시온>, אֶשְׁעָן(수15:52) <에산>,

④ 뒤이어 나오는 ו 와 합해서 <수>로 적었다: אֶשְׁוֹרְשָׁא(에1:1 등) <아하수에로>.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를 ס나 ש의 경우와 구별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쉬>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 ①의 אַמְשָׁי는 <아마쉬사이>로, ②의 보기들은 각각 <헤쉬분>과 <파쉬후르>와 <비셀람>과 <헤쉬몬>과 <기쉬파>와 <와쉬티>로, ③의 보기들은 각각 <미쉬알>과 <야아르쉬야>와 <키쉬온>과 <에쉬안>으로, ④의 אֶשְׁוֹרְשָׁא는 <아하쉬웨로쉬>로 고쳐 적을 만하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ש을

① <스>로 적거나: יֵשָׁאוּ(삿6:11 등) <요아스>, מַשׁ(창10:23) <마스>, מִכְתָּשׁ(슌1:11) <막테스>, שׁוֹכַרְשׁ(사44:28 등) <고레스>, קִישׁ(삼상9:1 등) <기스>, אֶנְשָׁו(창4:26 등) <에노스>, שׁוֹכ(창10:6 등) <구스> 등,

② 전혀 적지 않았다: אֶשְׁוֹרְשָׁא(에1:1 등) <아하수에로>, שׁוֹרְשָׁו(단6:1 등) <다리오>.

이 두 경우도 앞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쉬>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에 든 보기들은 각각 <요아쉬>와 <마쉬>와 <막테쉬>와 <코레쉬>와 <기쉬>와 <에노쉬>와 <쿠쉬>와 <아하쉬웨로쉬>와 <다르야웨쉬>로 고쳐 적을 만하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 이를

① 보통은 받침 <א>과 첫소리 <א>으로 나누어 적지만: מִנְשָׂא(창41:51 등) <므낫세>, אֶשְׁוֹר(창10:11 등) <앗수르>, אֶשְׁיָא(대상7:5 등) <잇시야> 등,

② 드물게 첫소리 <א>으로만 적기도 했다: תְּלַשָּׁר(사37:12) <틀라살>.

이 두 경우 다 받침 <א>과 첫소리 <ש>와 그 다음 모음이 합친 꼴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보기들은 각각 <므낫세>와 <앗수르>와 <잇쉬야>와 <틀랏샤르>로 고쳐 적을 만하다.

2.2.23. ת

(1) 낱말이나 음절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ת를 첫소리 <ㄷ>으로 적었다 : תְּבַל(신1:1) <도벨>, תְּבַנּוּ(삼하5:14 등) <나단>, תְּבַשְׁתָּרָה(수21:27) <브에스드라> 등.

그렇지만, 위 2.1.(1)을 따라 <ㄷ>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세 보기는

각각 <토크>과 <나탄>과 <브에쉬트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2)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올 때에는, ת를

① א, ב, ג, ד, ה, ו, ז, ח, ט, י, כ, ל, מ, נ, ע, פ, צ, ש, ת 앞에서 받침 <ט>으로 적거나: אל-בית(창12:8 등) <벤엘>, בית ברך(삿7:24) <벤 바라>, בית-גור(대상2:51) <벤가델>, בית-דגון(수15:41) <벤다곤>, בית הרם(수13:27) <벤 하람>, בית כר(삼상7:11) <벤갈>, בית לבאות(수19:6) <벤 르바웃>, בית מעקה(삼하20:14) <벤마아가>, בית נמרוד(민32:36 등) <벤니므라>, בית-ענוות(수15:59) <벤 아눗>, בית פעור(신3:29 등) <벤브울>, בית-צור(대하11:7; 등) <벤술>, בית-שמש(삿1:33 등) <벤세메스>, בית-תופח(수15:53) <벤 답부아> 등,

② ל, ג, ר 앞에서 <ד>로 적거나: יתלה(수19:42) <이들라>, בית לחם(삿17:7 드) <베들레헴>, אתגן(대상4:7) <에드난>, יתניאל(대상26:2) <야드니엘>, יתרו(출3:1 등) <이드로>, בית רפה(대상4:12) <베드라바> 등,

③ י 앞에서 첫소리 <ט>로 적거나: ביתה(대상4:18) <비디아>, בניותיה(수15:28) <비스요다>.

④ ב, י, נ 앞에서 받침 <ט>으로 적었다: אתבעל(왕상16:31) <엣바알>, בית יאוב(대상2:54) <아다룻벳요압>, עתניאל(수15:17 등) <웃니엘> 등.

이에 따르면, ב이나 י이나 נ 앞에 오는 ת의 음역 방식이 여러 가지이어서, 각 경우에 어느 쪽으로 통일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ב가 ת 뒤에 오는 경우에 ת는 한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받침 <ט>으로 적어야 하므로 ①의 경우는 ④의 경우처럼 고쳐야 한다. 곧, ①의 보기인 בית ברך <벤 바라>는 ④의 보기인 אתבעל <엣바알>의 경우처럼 <벳바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י가 ת 뒤에 오는 경우에는 위 2.1.(1)과 2.2.2.(2)를 따라 ת를 <트>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③의 보기인 ביתה <비디아>와 ④의 보기인 בית יאוב <아다룻벳요압>은 각각 <비트야>와 <아트룻베트요압>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위 ①에서 א이나 ע 앞에 ת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곧, בית-אל <벤엘>과 בית-ענוות <벤 아눗>은 각각 <베트엘>과 <베트아눗>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후음 ה 앞의 ת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루면 좋다. 곧, בית הרם은 <베트하람>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נ이 ת 뒤에 오는 경우에는 ת가 נ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트>로 적는 것이 좋다. 곧, ④의 보기인 עתניאל <웃니엘>은 <온니엘>로 발음되어 ת가 נ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오트니엘>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②

의 보기인 תַּיִאל <야드니엘>과 ①의 보기인 בֵּית נְמָרָה <벤니므라>는 각각 <야트니엘>과 <베트니므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מ이 ת 뒤에 오는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다룰 수 있다. 곧, ①의 보기인 בֵּית מַעֲכָה <벤마아가>는 <벤마아가>로 발음되어 ת가 נ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베트마아카>로 고쳐 적는 것이 좋다.

위 ②에서 남은 경우로 ל이나 ר가 ת 뒤에 올 때는, 위 2.1.(1)을 따라 ת를 <트>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יתָּה <이들라>와 יתְרוֹ <이드로>는 각각 <이들라>와 <이트로>로 고쳐 적을 만하다. 이에 따라 ①의 보기 가운데서 בֵּית לְבָאוֹת <벤 르바웃>도 <베틀르바웃>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위 ①의 나머지 경우에는 ת을 받침 <ㄱ>으로 적는 것이 좋다. 곧, בֵּית-גָּדָר <벤가델>, בֵּית-דָּגוּן <벤다곤>, בֵּית-כָּר <벤갈>, בֵּית-פְּעוֹר <벤브울>, בֵּית-צוּר <벤술>, בֵּית-שָׁמֶשׁ <벤세메스>, בֵּית-תּוֹפֵחַ <벤 답부아>는 각각 <벳가데르>, <벳다곤>, <벳카르>, <벳프오르>, <벳추르>, <벳세메쉬>, <벳탑푸아흐>로 고쳐 적을 수 있다.

이리하여, 낱말의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ת는 א, י, ל, מ, נ, ע, ר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 앞에서는 <트>로 적고, 나머지 경우에는 받침 <ㄱ>로 적는 것이 좋다.

(3) 낱말의 끝에 올 때에는, ת를

① 주로 받침 <ㄱ> 으로 적지만: אֶפְרַת(대상2:19) <에브랏>, אֶשֶׁת(창4:25 등) <셋>, פְּלִשְׁתָּ(사14:29 등) <블레셋>, כְּרִיתָ(왕상17:3,5) <그릿>, רוּת(룻1:4 등) <룻> 등,

② 때로는 받침 <ㄷ>으로 적었다: גָּדָ(수11:22 등) <가드> 등. 이 경우도 앞 경우처럼 받침 <ㄱ>으로 적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맞다. 따라서 이 보기는 <갓>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

(4) 중복점이 찍혔을 때에는, 이를 받침 <ㄱ>과 첫소리 <ㄷ>으로 나누어 적었다: מַתָּן(왕하11:18 등) <맛단>, אֶמְתִּי(왕하14:25 등) <아밋대>, כִּתְיִם(창10:4 등) <깃담> 등.

그렇지만, 이는 위 (3)과 2.1.(1)을 따라 받침 <ㄱ>과 첫소리 <ㄷ>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다. 곧, 위의 세 보기는 각각 <맛탄>과 <아밋타이>와 <깃담>으로 고쳐 적을 만하다.

2.3.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의 자음에 대한 개역한글판의 음역 방식 종합 정리

(1) 첫소리로 쓰이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각 자모를 한글개역판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적고 있는지는 이미 앞 2.1.(1)에서 밝힌 바 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만 모아 보면, **א**를 아예 적지 않은 경우, **א**를 <ㅇ>으로 적은 경우, **א**를 첫소리 <ㄱ>이나 <ㅇ>으로 적거나 아예 적지 않는 경우, 낱말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ל**를 받침 <ㄹ>과 첫소리 <ㄹ>로 나누어 적거나, 첫소리 <ㄴ>으로만 적는 경우, **מ**을 <ㅇ>으로 적는 경우, 낱말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의 **מ**을 <ㄹ>로 적는 경우, **ע**을 <ㄱ>이나 <ㅎ>으로 적거나 아예 적지 않는 경우가 그러하다.

(2)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자모의 음역 방식을 한데 모아 도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받침으로 적은 경우	도움 모음 <—>와 함께 적은 경우, 또는 기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적은 경우
א (없음)	(없음)	(없음)
ב 받침 <ㅂ>: ב , ב , ב , ב , <브>: א , א , ל , ג , ע , צ , ש , ת 앞	ב , ב 앞	첫소리 <ㅂ>: א , י , ע 앞
받침 <ㅁ>: ג 앞		
ג 받침 <ㄱ>: ב , ב , ב , ב 앞 <그>: ו , ל , ר 앞		첫소리 <ㄱ>: א , ע 앞
ד 받침 <ㄷ>: ב , ג , ב , ג , <드>: ב , ל , ב , ג , ע , צ , ש 앞	ד , ר 앞	첫소리 <ㄷ>: י , ע 앞
ה (없음)	<하>: ר 앞 표시 없음: ג , ר , צ 앞	첫소리 <ㅎ>: א 앞
ו (없음)	<우>, <위>	(없음)
ז (없음)	<스>: ב , ד , ר 앞	첫소리 <ㅈ>: י 앞
ח 받침 <ㄱ>: ב , ש 앞 받침 <ㅅ>: ת 앞	<흐>: ל , ב 앞 <하>: ר 앞 <히>: י 앞 <ㄱ>: ב , ש 앞 <ㅅ>: ת 앞 표시 없음: ב , ר , ל , ב , פ 앞	첫소리 <ㅎ>: א , י 앞
ט 받침 <ㅅ>: ב , ג 앞	<드>: ר 앞	첫소리 <ㄷ>: י 앞
י (없음)	(없음)	(없음)

כ	받침 <כ>: כ, ז, ג, ט, פ, ש, ת 앞	<כ>: כ 앞	첫소리 <כ>: א, י 앞
ל	받침 <ל>: ל, ז, ח, מ, פ, צ, ש 앞	<ל>+<ל>: ל 앞	첫소리 <ל>: א, י 앞
		표시 없음: י 앞	
מ	받침 <מ>: מ, ז, ט, ג, ש 앞	<מ>: מ, ל, ר 앞	첫소리 <מ>: א, י, ע 앞
		<מ>: ל 앞	
נ	받침 <נ>: נ, כ, ה, ח, ט, ת 앞	<נ>: ע, ר 앞	첫소리 <נ>: א, י, ע 앞
ס	(없음)	<ס>: ס, ג, כ, ל, ו, פ, ר, ת 앞	첫소리 <ס>: י 앞
ע	(없음)	<א>: א, מ, ו, ש 앞	(없음)
		표시 없음: כ, ל, ו 앞	
פ	받침 <פ>: פ, מ, ו, ט, צ, ק, ת 앞	<פ>: ל, ח, ל, ו, ר 앞	첫소리 <פ>: י, ע 앞
צ	(없음)	<צ>: כ, ה, מ, פ, ק, ר 앞	첫소리 <צ>: ח, י 앞
ק	받침 <ק>: כ, ח 앞	<ק>: ל, ר 앞	첫소리 <ק>: ו, י 앞
ר	받침 <ר>: ח, כ, מ, ק 앞	<ר>: כ, ג, ד, ה, ז, ח, כ, מ, ו, פ, צ, ק, ש, ת 앞	첫소리 <ר>: א, י, ע 앞
		표시 없음: ל, ז, ח, מ, ש, ת 앞	
ש	(없음)	<ש>: מ, ר, ת 앞	첫소리 <ש>: ח 앞
ש	받침 <ש>: ט 앞	<ש>: כ, ח, ל, מ, פ, ת 앞	첫소리 <ש>: א, י, ע 앞
ת	받침 <ת>: א, כ, ג, ד, ה, כ, ל, מ, ו, ע, פ, צ, ש, ת 앞	<ת>: ל, ו, ר 앞	첫소리 <ת>: י 앞
	받침 א: א, י, ו 앞		

(4) 중복점이 찍힌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כ: 보통은 받침 <כ>과 첫소리 <כ>으로, 드물게 첫소리 <כ>으로만,

- ㄱ: 보통은 받침 <ㄱ>과 첫소리 <ㄱ>으로, 드물게 첫소리 <ㄱ>으로만,
- ㄴ, ㄷ: 보통은 받침 <ㄴ>과 첫소리 <ㄷ>으로, 드물게 첫소리 <ㄷ>으로 적었고,
- ㄹ, ㅁ: 중복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고,
- ㅂ, ㅅ, ㅈ: 보통은 받침 <ㅂ>과 첫소리 <ㅂ>으로, 드물게 첫소리 <ㅂ>으로만,
- ㅃ, ㅆ: 받침 <ㅃ>과 첫소리 <ㅃ>으로,
- ㅅ: 받침 <ㅅ>과 첫소리 <ㅅ>으로,
- ㅆ: 보통은 받침 <ㅆ>과 첫소리 <ㅆ>으로, 드물게 첫소리 <ㅆ>으로만,
- ㅈ: 보통은 받침 <ㅈ>과 첫소리 <ㅈ>으로, 드물게 첫소리 <ㅈ>으로만,
- ㅊ: 받침 <ㅊ>과 첫소리 <ㅊ>으로,
- ㅋ: 받침 <ㅌ>과 첫소리 <ㅌ>으로, 드물게 첫소리 <ㅌ>으로만,
- ㆁ: 받침 <ㅇ>과 첫소리 <ㅇ>으로나 첫소리 <ㅇ>으로만,
- ㆁ: 받침 <ㅇ>과 첫소리 <ㅇ>으로,
- ㄷ: 받침 <ㄷ>과 첫소리 <ㄷ>으로 적었다.

2.4. 한글개역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방식을 살린 히브리어 자음 음역 시안 정리

2.4.1. 히브리어 자모별 음역 시안 도표

지금까지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자음 음역 방식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도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달리 고쳐 적어야 할 바에 대해 개별적으로 말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과 아울러 한데 모아 도표로 정리한 것은 [부록]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조건표'의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2.4.2. 히브리어 자모별 음역 시안 도표에 대한 설명

위의 도표의 내용 가운데 한 경우에 두 가지의 음역 가능성을 제시한 데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묵음일 수 있는 두 자모(ㄴ과 ㄷ):

① ㄴ의 경우, 고유 명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 낱말에서는 단힌 음절의 끝에 와서 소리값을 지닐 때가 있는데⁷⁷⁾, 이럴 때에는 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ㅇ>으로 적기로 한다.

77) 위 2쪽을 보라.

② 낱말 끝의 ׀는 보통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음역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발음하도록 표시를 해 둔 경우(׀)에는 <호>로 적고,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는 보통 <호>로 적지만, 드물게 묵음이 되면 음역하지 않기로 한다.

(2) 반자음 ׀:

음절 첫머리의 ׀가 ‘א’ 계통 모음과 합할 때는 <ㄱ>로, ‘כ’나 ‘ך’ 계통 모음 과 합할 때는 <ㄷ>로 적는다.

(3) 측음 ׀:

① 낱말 첫머리가 아닌 음절의 첫머리에 오는 ׀은 그 앞 음절 마지막 자모에 붙이는 받침 <ㄹ>과 첫소리 <ㄹ>로 적는다.

② 낱말 끝이 아닌 음절의 끝에 오는 ׀를 받침 <ㄹ>과 <르>로 적을 경우는 그 뒤에 ׀, ׀이나 반자음이 올 때이다. 후음 ׀와 ׀가 뒤에 올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비음 ׀과 ׀: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이나 ׀ 뒤에 측음(׀)이나 전동음(׀)이 있으면, ׀이나 ׀을 각각 <ㅁ>나 <ㄴ>로 적는다.

(5) 기음이 있는 여섯 자모(이른바 ‘브갓크팍’: ׀,׀,׀,׀,׀,׀)와 그 관련 두 자모(׀,׀): 이 여덟 자모는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서 받침으로, 아니면 도움모음 <—>가 붙은 꼴로 적는다. 도움모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개역한글판에서 확인된 뒷자음	뒷자음의 일반화한 범주
① ׀ <브> ׀, ׀, ׀, ׀, ׀, ׀, ׀, ׀	후음, 반자음, 측음, 비음, 전동음
② ׀ <그> ׀, ׀, ׀, ׀, ׀, ׀	후음, 반자음, 측음, 전동음
③ ׀ <드> ׀, ׀, ׀, ׀, ׀, ׀	후음, 반자음, 측음, 비음, 전동음
④ ׀ <크> ׀, ׀, ׀, ׀	후음, 반자음, 비음, 전동음
⑤ ׀ <프> ׀, ׀, ׀, ׀, ׀, ׀	후음, 반자음, 측음, 비음, 전동음
⑥ ׀ <트> ׀, ׀, ׀, ׀, ׀, ׀	후음, 반자음, 측음, 비음, 전동음
⑦ ׀ <트> ׀, ׀, ׀	반자음, 비음, 전동음
⑧ ׀ <크> ׀, ׀, ׀, ׀	반자음, 측음, 전동음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명사 음역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이 도표에 빠진 부분은 비슷한 성질을 지닌 자모들의 경우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 있다. 곧, ③ ׀과 ⑥ ׀의 경우를 두고 볼 때, ⑦ ׀도 후음과 측음 앞에서

<트>로 적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ㄴ과 ④ㄱ과 ⑧ㅍ를 서로 견주어보면, ②ㄴ은 비음 앞에서도, ④ㄱ은 측음 앞에서도, ⑧ㅍ는 후음과 비음 앞에서도 각각 <그>와 <크>와 <크>로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리하여 연장점을 찍을 수 있는 여섯 자음(ㄴ, ㄹ, ㄱ, ㅋ, ㅍ, ㅌ)과 ㅃ, ㅍ이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고 그 뒤에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전동음이나 비음이 있을 때, 이 자음들이 각각 지니는 기본 소리값인 <ㅃ>, <ㄱ>, <ㄴ>, <ㅋ>, <ㅍ>, <ㅌ>에 도움 모음 <ㅡ>를 붙여 적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4.3. 도움모음 <ㅡ>가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 제안하는 히브리어의 한글 음역 시안에서 각 자모의 기본 소리값에 도움모음 <ㅡ>를 붙여 적어야 할 경우를 한데 모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낱말 끝이나 음절 끝에 오면서 묵음이 되지 않는 후음(ㄴ, ㄷ, ㄱ, ㅍ),
- (2) 음절 끝에 오는 치찰음(ㄹ, ㄷ, ㅅ, ㅈ)과 전동음(ㄱ),
- (3)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측음(ㄴ) 뒤에 ㄴ, ㅍ이나 반자음이 있을 때,
- (4)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는 비음(ㅃ, ㄴ) 뒤에 ㄴ이나 ㄱ이 있을 때,
- (5) 위 2.3.2.(5)에서 언급한 여덟 자모, 곧 연장점이 없고 있음에 따라 기음(氣音)이 되거나 되지 않는 식으로 달라지는 여섯 자음(ㄴ, ㄹ, ㄱ, ㅋ, ㅍ, ㅌ)과 그 관련 두 자모(ㅃ, ㅍ)가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오면서, 그 뒤에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이 있을 경우.

3. 나오는 말

3.1. 음역 시안의 한계와 남은 문제

(1) 히브리어 한글 음역 방식을 개역한글판의 히브리어 고유 명사 음역 전통을 살려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에 다음 두 가지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모음의 경우에는 장단의 차이를 구별해서 적을 수 없다.

둘째, 자음의 경우에는, ㄴ과 ㄴ, ㅃ와 ㅃ, ㄱ와 ㄱ, ㅈ과 ㅈ의 차이, 연장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ㄴ ㄹ ㄱ ㅋ ㅍ ㅌ, 중복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1와 1̣를 서로 구별해서 적을 수 없다.

(2) 그렇지만, 히브리어 문법을 제대로 익힌 사람은 이 글에서 제시한 정도의 음역 방식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도 원문을 상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 시안을 실제 적용하여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음역하는 과정에서, 이 시안 가운데서 개선할 부분이나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드러나는 대로 고치고 덧붙임으로써, 그 나은 음역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2. 음역 시안에 따라 적은 낱말의 히브리어 상응어 추정 검토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음역 시안에 따라 히브리 낱말을 우리 글로 적은 것에서 그것이 표시하는 본디 히브리 낱말을 어떻게 거꾸로 추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모음 <ㅏ>는 ֶ/ִָּ/ַּ/ְּ의, <ㅑ>는 ֵ/ֵׇ/ֶׇ/ׇֹ의, <ㅣ>는 ׇֹ의, <ㅓ>는 ׀ / ׀ׇ / ׀ׇ의, <ㅕ>는 ׀ / ׀ׇ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음 <ㅓ>의 경우에는, 유성 단순 <쉬와>()̣,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무성 <쉬와>()̣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아래[4]를 보라). 모음 <ㅓ>가 나란히 둘 나오면, 앞의 것은 무성 <쉬와>이고 뒤의 것은 유성 <쉬와>의 음역이다.

(2) 첫소리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은 각각 히브리어 자모 ק/ק, נ, ג, ד/ד, ל, מ, ב/ב, ט/ט, א/וׇ/יׇ/ע, ז, צ, כ/כ/ק, ט/ת/ת, פ/פ, ת/ת를 음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은 각각 아래 (3)의 경우를 제외한, 음절 끝이나 낱말 끝에 오는 히브리어 자모 ק/כ/ק, נ, ל, מ/ם, ב/ב, ד/ט/ת를 음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받침 <ㅇ>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자모는 없다.

(4) 모음 <ㅓ>가 붙은 경우로

① 한글의 모든 자모에 붙은 <ㅓ>는 유성 <쉬와>의 음역으로,

② <ㄱ>, <ㄷ>, <브>, <크>, <트>, <프>는 각각 후음이나 반자음이나 측음이나 비음이나 전동음 앞에 오면서 한 음절의 끝이 되는 ק, ד, ב, כ/ק, ט/ת, פ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ㄴ>나 <ㅁ>는 각각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נ이나 מ이 ל이나 ג 앞에 있을 경우의 음역으로,

④ <르>의 경우에는 음절 끝의 ר의 음역으로 (또한 아래 [8] 참고),

- ⑤ <스>, <즈>, <츠>는 각각 음절 끝의 ס/ש, ז, צ의 음역으로,
 ⑥ <으>와 <호>는 각각 א이나 ב, פ나 פ이 음절 끝이나 낱말 끝에 오면 서 묵음이 아닌 경우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 <아>, <예>, <이>, <요>, <유>, <여>는 자모 א에 모음 א/א/א, א/א/א, א/א/א 이 합한 것의 음역으로, <샤>, <세>, <쉬>, <쇼>, <슈>, <취>는 자모 ש에 모음 א/א/א, א/א/א, א/א/א 이 합한 것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 (6) <와>, <웨>, <위>, <위>는 자모 ו에 모음 א/א/א, א/א/א, א/א/א 이 합한 것의 음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 (7) 낱말 중간에 <ג>, <ל>, <ר>, <מ>, <ב>이 받침과 그 다음 음절의 첫소리에 잇달아 나올 때, 이것들이 각각 히브리 자모 ג, ל, ר, מ, ב에 중복점이 찍힌 것의 음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 (8) 낱말 중간에 받침 <ר>과 <르>가 잇달아 나올 때, 이는 낱말 끝이 아닌 음절 끝에 있는 ר의 음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 (9) 낱말 중간에 받침 <ג>과 첫소리 <כ>, 받침 <ב>과 첫소리 <פ>, 받침 <ס>과 첫소리 <ס>, 받침 <ס>과 첫소리 <צ>/<츠>/<시>가 잇달아 올 때, 이는 각각 כ, פ, ס/ש, ז/צ/ש에 중복점이 찍힌 것의 음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부록]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 조건표

1. 모음: (1)길고 짧음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끝, 모음 א/א/א, א/א/א, א/א/א는 <ㅏ>로, א/א/א, א/א/א, א/א/א는 <ㅓ>로, א/א/א는 <ㅣ>로, א/א/א는 <ㅜ>로, א/א/א는 <ㅛ>로 적는다. (2) 유성 단순 <취와>(,)는 <ㅡ>로 적는다. 단 א와 ש에 유성 단순 <취와>가 붙은 꼴은 각각 <여>와 <취>로 적는다. (3) 무성 <취와>(.)를 <ㅡ>로 적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3.(3)-(5)를 보라.
2. כ, ל, ר, מ, ב에 연강점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별하여 적지 않는다.
3. 자모별로 각 자모가 ① 음절 첫머리에 올 때, ② 낱말 끝에 올 때, ③ 낱말 끝 아닌 음절 끝에 올 때, ④ 중복될 때 어떻게 음역할 것인지는 다음 표를 보라.

	①	②	③	④
א	<오>	(목음)	(목음)/[<으>](중복될 수 없음)	
ב	<하>	<하>	<하>/<브>	받침<하>+첫소리<하>
ג	<가>	<가>	<가>/<그>	받침<가>+첫소리<가>
ד	<다>	<사>	<사>/<드>	받침<사>+첫소리<다>
ה	<호>	(목음)/<호>	<호>/<목음>	(중복될 수 없음)
ו	<오>/<우>	<우>	<우>	(중복 사실 표시 않음)
ז	<자>	<즈>	<즈>	받침<사>+첫소리<자>
ח	<하>	<호>	<호>	(중복될 수 없음)
ט	<타>	<사>	<사>/<트>	받침<사>+첫소리<타>
י	<이>	<이>	<이>	(중복 사실 표시 않음)
כ	<카>	<가>	<가>/<크>	받침<가>+첫소리<카>
ל	<라>/<라>+<라>	<라>	<라>/<라>+<르>	받침<라>+첫소리<라>
מ	<마>	<마>	<마>/<므>	받침<마>+첫소리<마>
נ	<나>	<나>	<나>/<느>	받침<나>+첫소리<나>
ס	<사>	<스>	<스>	받침<사>+첫소리<사>
ע	<오>	<으>	<으>	(중복될 수 없음)
פ	<포>	<하>	<하>/<프>	받침<하>+첫소리<포>
צ	<차>	<츠>	<츠>	받침<사>+첫소리<차>
ק	<카>	<가>	<가>/<크>	받침<가>+첫소리<카>
ר	<라>	<르>	<르>	(중복될 수 없음)
ש	<사>	<스>	<스>	받침<사>+첫소리<사>
ׁ	<시>	<쉬>	<쉬>	받침<사>+<시>
ת	<타>	<사>	<사>/<트>	받침<사>+첫소리<타>

위 ①에서, (1) 낱말 첫머리가 아닌 음절 첫머리의 **ל**은 그 앞 음절 마지막 소리 아래 붙이는 받침 <ㄹ>과 첫소리 <ㄹ>로 적고, (2) **ו**는 모음 ‘**ו**’ 앞에 서만 <오>의 소리값을 지닌다. 또 위 ③에서, (3) 연강점을 찍을 수 있는 여섯 자음(**ב, ג, ד, ז, ח, ט**)과 **ט, ק**은 바로 뒤에 후음(**א, ה, ו, ע**)이나 반자음(**י, יׁ**)이나 축음(**ל**)이나 비음(**מ, נ**)이나 전동음(**ר**)이 있을 때만, 각각 <브>, <그>, <드>, <크>, <프>, <트>, <트>, <크>로 적고, (4) **ל**은 바로 뒤에 **א, ע**이나 반자음 이 있을 때만, 받침 <ㄹ>와 <ㄹ>로 나누어 적으며, (5) **מ**과 **נ**은 바로 뒤에 **ל**이나 **ר**이 있을 때만, 각각 <므>와 <느>로 적는다.